

동향과 이슈 2021-4

서울의 노동 동향

- 2019~20년 -

박 정 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최 은 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서울노동권익센터

- 목 차 -

I. 개 요	1
1. 주요 분석 내용	1
1) 사업체 동향	1
2) 노동 동향	1
3) 취약계층 노동자	2
4) 이슈 분석	6
2. 분석 대상	7
3. 데이터	9
II. 산업 동향	10
1. 사업체 동향	10
2. 종사자 동향	12
III. 노동 동향	16
1. 경제활동인구 동향	16
1) 성별 경제활동인구	21
2) 연령별	26
3) 교육수준별	31
4) 종사상 지위별	34
5) 업종별	35
6) 직종별	36
7) 취업시간별	37

2. 임금노동자 동향	38
3. 노동조합 동향	43

IV.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45

1. 인적속성 구분	45
1) 청년 노동자	45
2) 여성 노동자	49
3) 노인 노동자	54
2. 취약형태 구분	59
1) 임시일용직 노동자	59
2) 기간제 근로자	62
3) 단시간 노동자	65
4) 저임금 노동자	68
5) 소규모 자영업	71
3. 주요 이슈 동향	75
1)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75
2) 그냥 쉬었음	79
3) 노동인식	80

- 표 목차 -

〈표-1〉 인적속성별 고용지표 변화	2
〈표-2〉 인적속성별 산업 특징	3
〈표-3〉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화	4
〈표-4〉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 변화	4
〈표-5〉 보고서 구성과 분석 자료	9
〈표-6〉 임금노동자의 구성	39
〈표-7〉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40
〈표-8〉 취약형태별 임금노동자의 구성	41
〈표-9〉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42
〈표-10〉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45
〈표-11〉 종사상 지위별 청년 취업자	46
〈표-12〉 청년 임금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47
〈표-13〉 청년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48
〈표-14〉 청년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48
〈표-15〉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49
〈표-16〉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50
〈표-17〉 여성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51
〈표-18〉 여성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52
〈표-19〉 여성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53
〈표-20〉 여성 임금노동자의 경력단절	54
〈표-21〉 노인의 경제활동상태	55
〈표-22〉 종사상 지위별 노인 취업자	55
〈표-23〉 노인 임금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56

〈표-24〉 노인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57
〈표-25〉 노인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58
〈표-26〉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59
〈표-27〉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60
〈표-28〉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여건	61
〈표-29〉 기간제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62
〈표-30〉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63
〈표-3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64
〈표-32〉 단시간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65
〈표-33〉 단시간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66
〈표-34〉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여건	67
〈표-35〉 저임금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69
〈표-36〉 저임금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70
〈표-37〉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여건	71
〈표-38〉 소규모 자영업의 규모	72
〈표-39〉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72
〈표-40〉 산업별 소규모 자영업 규모	73
〈표-41〉 산업별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74
〈표-42〉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76
〈표-43〉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77
〈표-44〉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근로여건	78
〈표-45〉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	78
〈표-46〉 ‘그냥 쉬었음’의 인구사회적 구성	79

- 그림 목차 -

[그림-1] 사업체 추이	10
[그림-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추이	11
[그림-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추이	11
[그림-4] 종사자 추이	12
[그림-5] 성별 종사자 추이	13
[그림-6]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추이	13
[그림-7] 기업규모별 종사자 추이	14
[그림-8] 주요 산업별 종사자 비중 추이	15
[그림-9] 15세이상인구 - 전체 인구	16
[그림-10] 경제활동인구 - 전체 인구	17
[그림-11] 비경제활동인구 - 전체 인구	17
[그림-12] 취업자 - 전체 인구	18
[그림-13] 실업자 - 전체 인구	18
[그림-14]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 인구	19
[그림-15] 고용률 - 전체 인구	19
[그림-16] OECD기준 15~64세 고용률	20
[그림-17] 실업률 - 전체 인구	20
[그림-18] 15세이상인구 - 성별	21
[그림-19] 경제활동인구 - 성별	21
[그림-20] 비경제활동인구 - 성별	22
[그림-21] 취업자 - 성별	23
[그림-22] 실업자 - 성별	23
[그림-23]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24

[그림-24] 실업률 - 성별	25
[그림-25] 고용률 - 성별	25
[그림-26] OECD기준 15~64세 고용률 - 성별	26
[그림-27] 15세이상인구 - 연령별	27
[그림-28] 경제활동인구 - 연령별	27
[그림-29] 취업자 - 연령별	28
[그림-30] 실업자 - 연령별	28
[그림-31] 비경제활동인구 - 연령별	29
[그림-32] 경제활동참가율 - 연령별	30
[그림-33] 고용률 - 연령별	30
[그림-34] 실업률 - 연령별	31
[그림-35] 15세이상인구 - 교육수준별	32
[그림-36] 경제활동인구 - 교육수준별	32
[그림-37] 취업자 - 교육수준별	33
[그림-38] 비경제활동인구 - 교육수준별	33
[그림-39] 경제활동참가율 - 교육수준별	34
[그림-40]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35
[그림-41] 비정규직 규모	35
[그림-42] 취업자 - 업종별	36
[그림-43] 취업자 - 직종별	37
[그림-44] 취업자 - 취업시간별	38
[그림-45] 노동조합 조직률 - 추정치	44
[그림-46] 성별 노동조합 조직률 - 추정치	44
[그림-47] 직업선택 우선순위	81
[그림-48] 일과 가정 우선도 - 전체	82

[그림-49] 일과 가정 우선도 - 남성	82
[그림-50] 일과 가정 우선도 - 여성	83
[그림-51] 일·가정양립문화에 대한 만족도	83
[그림-52] 전반적인 근무만족도	84
[그림-53] 임금만족도	85
[그림-54] 고용안정성	85
[그림-55]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86
[그림-56]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86
[그림-57] 근무환경 만족도	87
[그림-58]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노력 만족도	88
[그림-59] 직장 내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만족도	88
[그림-60]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	89

I. 개 요

1. 주요 분석 내용

1) 사업체 동향

□ 전국에서 서울지역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 미만으로 하락. 지난 10년 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서울 사업체의 제조업 비중도 1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꾸준히 하락하여 78% 수준임

□ 서울 사업체 종사자 비중도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 수준임

- 성별로는 여성 종사자가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44.8%로 상승함(남성 종사자 288만 명, 여성 종사자 234만 명)

- 업종에 따라보면 서울에서 종사자 비중이 상승하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 건설업(7%)이 이에 해당함.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 노동 동향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62.1%)과 고용률(59.3%)은 지난 10년 간 등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고, 15~64세 고용률(65.9%)과 실업률(4.6%)은 상승 추세

-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54.3%), 실업률(4.9%), 고용률(51.6%) 모두 상승하

2 개 요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30대(79.9%)와 노인(38.7%)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상용직 취업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다른 종사상 지위에서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지난 10년 동안 나타남

- 지난 10년 동안 상용근로자가 232만 명에서 29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조금씩 하락
- 비정규직 규모도 2011년 34.2%(134만 명)에서 2020년 31.5%(123만 명)로 하락 추세

□ 서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7.7%(157만 명)로 2017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음. 그러나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미미함

- 2016년 이후부터 남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0년 43.3%로 상당히 높고, 여성의 조직률은 16.0%로 약간의 상승을 보임

3) 취약계층 노동자

□ 인적속성별 고용 및 산업 변화

<표-1> 인적속성별 고용지표 변화('19년 대비 %)

인적속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	하락	하락	하락
여성	하락	하락	상승
노인	하락	하락	상승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표-2> 인적속성별 산업 특징('19년 대비 %)

인적속성	주요 변화(산업별 비중 기준)
청년	전문기술서비스,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
여성	보건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 음식숙박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제조업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업 ↓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청년)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감소, 임금증가율은 미미하고 근로시간은 감소

- 서울의 청년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6.5%로 전년대비 3.5%p 하락, 특수지역 임금노동자는 2.4%로 전년대비 0.2%p 하락

□ (여성)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전문기술직 비중이 증가, 음식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 감소

- 서울의 여성 임금노동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 15.9%로 전년대비 0.7%p 상승, 음식숙박업은 9.4%로 전년대비 1.4%p 하락
-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4.4%로 전년대비 0.7%p 상승

□ (노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월평균임금과 근로시간 증가

- 서울의 노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5.8%로 전년대비 3.0%p 상승, 시간당임금은 12,542원으로 전년대비 1,810원 증가

□ (임시일용직) 서울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전년대비 약 15만 명 감소, 건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제조업에서 증가

- 서울의 임시일용직은 120만 명으로 전년대비 15만 명(11.3%) 감소
- 건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제조업에서 증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

육서서비스업에서 감소

□ 취약계층 연령, 성별, 학력 및 산업 변화

<표-3>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변화('19년 대비 %)

취약계층	연령	성별	학력
임시일용직	65세 이상 ↑ 45~54세 ↓	남성 ↑ 여성 ↓	고등학교 졸업 ↑ 중학교 이하 ↓
기간제 근로자	15~34세 ↑ 65세 이상 ↓	남성 ↑ 여성 ↓	대학교 졸업 ↑ 중학교 이하 ↓
단시간 노동자	35~44세 ↑ 65세 이상 ↓	남성 ↑ 여성 ↓	대학교 졸업 ↑ 중학교 이하 ↓
저임금 노동자	55~64세 ↑ 65세 이상 ↓	남성 ↑ 여성 ↓	대학교 졸업 ↑ 중학교 이하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55~64세 ↑ 45~54세 ↓	남성 ↑ 여성 ↓	대학교 졸업 ↑ 중학교 이하 ↓
그냥 쉬었음	65세 이상 ↑ 55~64세 ↓	여성 ↑ 남성 ↓	중학교 이하 ↑ 고등학교 졸업 ↓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표-4>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 변화('19년 대비 %)

취약계층	주요 변화(산업별 비중 기준)
임시일용직	건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제조업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
기간제 근로자	보건복지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
단시간 노동자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
저임금 노동자	도소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도소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 음식숙박업, 보건복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기간제 근로자) 서울의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대비 10.7% 증가, 계약 기간 1년 미만 비율은 감소, 1~2년과 2년 초과 계약기간 근로자는 증가

- 서울의 기간제 근로자는 84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8만 2천명 증가
-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11.7%p 하락,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64.3%

□ (단시간 노동자) 서울의 단시간 노동자는 약 166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92만명 증가,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에서 증가

- 단시간 근로자 증가 현상은 서울지역 노동시장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비자발적) 근로시간 감소(36시간 미만)로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35~44세 단시간 노동자 증가, 65세 이상 단시간 노동자 감소
- 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53.3%로 전년대비 16.4%p 하락
-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 (저임금 노동자) 서울의 저임금 노동자는 77만 1천명, 고용보험 가입한 저임금 노동자는 37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8.3%p 상승

- 고용보험 가입한 저임금 노동자는 전년대비 5만 7천명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감소

□ (소규모 자영업) 서울의 5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은 증가, 1인 자영업자는 감소

- 서울의 5인 미만 자영업은 65만 7천개로 전년대비 3.0% 상승, 서울의 5인 미만 자영업 종사자는 61만명으로 전년대비 6천명(0.9%) 감소
- 서울의 1인 자영업은 60만 2천개로 전년대비 8천명 감소

4) 이슈 분석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서울의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37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22만 3천명 감소

-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직장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서울의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도소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에서 상승,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에서 감소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35.7%로 13만 4천명

□ (그냥 쉬었음) 서울에서 주된 활동상태가 '그냥 쉬었음'이 53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3만 9천명 증가

- '그냥 쉬었음'은 55~64세가 15만 2천명, 15~34세가 12만 1천명, 남성이 37만명, 대학교 졸업이 23만 6천명임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의욕마저 잃어버린 니트(NEET)족 증가에 대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청년, 고령, 여성, 저학력에서 증가현상을 보임

□ (직업선택의 우선순위) 직업선택 우선순위는 '수입'이 가장 높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반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우선순위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수입에 대한 우선순위는 2009년 33.2%에서 2019년 40.9%로 상승
- 고용안정성 우선순위는 2009년 30%에서 2019년 22.2%까지 하락함

□ (일가정양립 인식) 일을 우선시 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상승함. 성별로 보면, 일을 중시하는 남성이 눈에 띄게 하락함

- 일을 중시하는 남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일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65% 정도에서 최근 52.4%까지 하락함
- 일·가정양립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 가치관 변화와 문화 개선이 정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만족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불만족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다만,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느끼는 경향은 하락하고 있고,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 하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2. 분석 대상

□ 인적속성에 따른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청년은 만15~34세로 정의함. 즉, 청년 노동자는 이 연령의 노동자를 지칭함. 학령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남성은 군입대 기간이 포함되면서,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서울시 청년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15~34세로 설정하였고, 국회에 발의된 청년기본법안,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15~34세로 설정하는 등 최근 청년 연령의 상한을 34세로 보는 법·정책적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정책의 기본 토대를 지향하는 본 보고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청년은 만 15~34세로 정의함
- 노인은 만65세 이상으로 정의함.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노인일자리 정책 대상을 참고하였음

□ 취약형태 구분에서 다루는 대상의 구체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임시일용직은 임금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지위(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임시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고,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임. 이는 비정규직과 많은 부분 공통분모를 형성하여, 많은 연구에서 비정규직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본 연구는 임시일용직으로 비정규직의 동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는 정도를 지향하고, 비정규직과 동일시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정의함
- 단시간 노동자도 동 법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되고 있음. 그리고 통계적 정의로써 통계청은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도 1주 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단시간 노동자로 정의함
- 저임금노동자는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비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임. 본 연구는 OECD 기준에 따라,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중위임금의 2/3미만(월133.3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함. 2019년과 2020년 서울의 중위임금은 166.7만원으로 동일함
- 소규모 자영업과 그 종사자는 최근 최저임금과 노동복지정책에 주요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분석은 종사자 규모와 연매출을 고려하여 3가지로 정의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소규모 자영업으로 보고, 이에 더하여 1인 자영업,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살펴봄. 연매출 5,000만 원은 간이과세대상자가 연매출 4,800만원인 점이 참고되었으며, 데이터의 한계로 2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함

□ 주요 이슈 분석에서 다루는 대상의 구체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시간당임금이 해당 연구의 최저임금보다 미만한 근로자를 의미함
- 그냥 쉬었음은 조사기간 동안 특별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 집단을 의미

3. 데이터

□ 분석 데이터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사회조사 활용

<표-5> 보고서 구성과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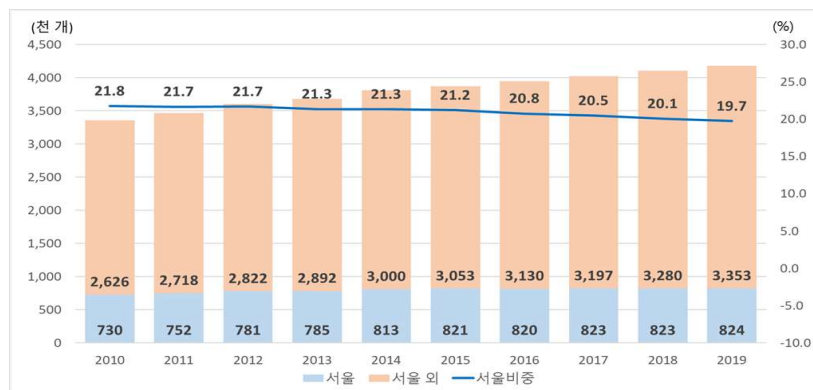
대목차	중 목차		자료	
서울의 산업 동향	사업체 동향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동향			
서울의 노동 동향	경제활동인구 동향		·지역별 고용조사	
	임금노동 동향			
	노동조합 동향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인적속성 구분	청년 노동자	·지역별 고용조사	
		여성 노동자		
		노인 노동자		
	취약형태 구분	임시일용직 노동자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기간제근로자		
		단시간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소규모 자영업자				
주요이슈 동향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지역별 고용조사	
	그냥 쉬었음			
	노동인식		·사회조사	

II. 산업 동향

1. 사업체 동향

- 전국 중 서울 소재 사업체 감소세 지속. 최근 20% 미만으로 하락
- 2016년 이후 서울의 사업체 수 증가 정체 (82만 3~4천 개)
- 서울 사업체 수는 정체되어 있으나 서울 외 지역 사업체 수 증가세 지속

[그림-1] 사업체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 사업체 중 제조업체 비율 10% 미만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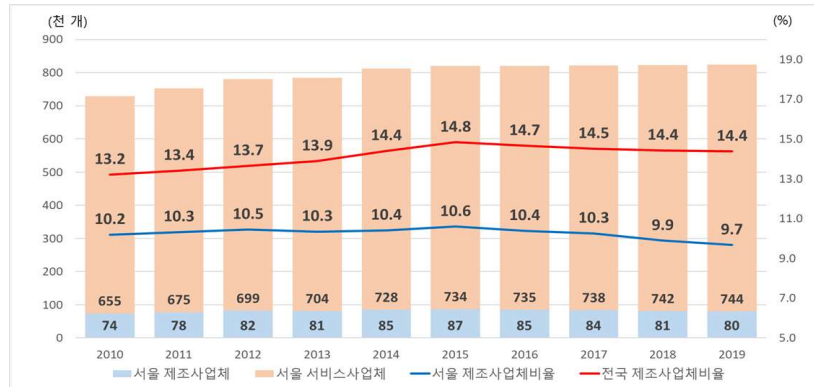
- 서울은 제조업체¹⁾(9.7%)보다 서비스업체²⁾(90.3%) 비중 절대적으로 많음
- 제조사업체는 조금씩 감소세에 있으나, 서비스업체는 조금씩 증가 추세임

1) 제조업은 제조업(C),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E), 건설업(F)

2)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11 19~20년 서울의 노동 동향

[그림-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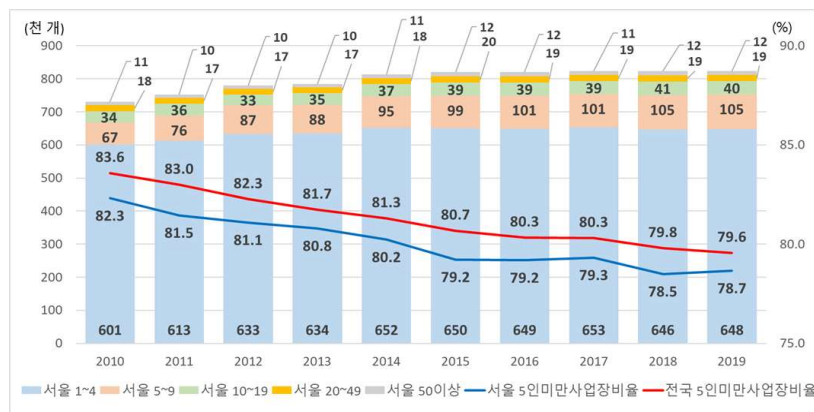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지난 10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10년엔 83.6%였지만, 2019년 78.7%로 감소
- 5~9인과 10~19인 사업체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그림-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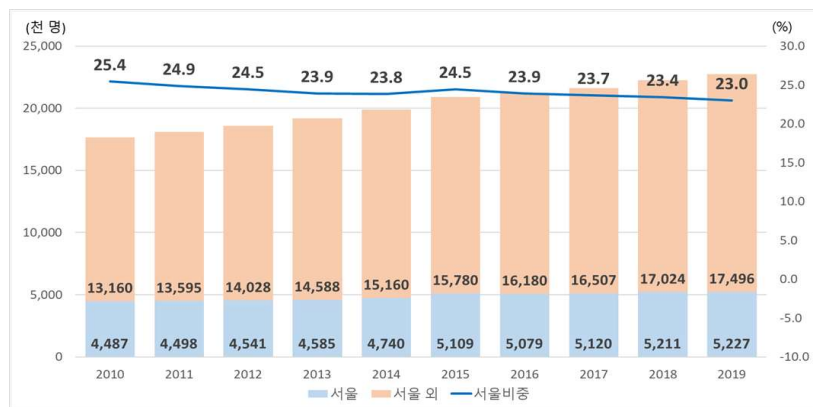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종사자 동향

□ 전국 중 서울 사업체 종사자 비중 지난 10년 간 하락 추세

-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2019년 서울 종사자는 전국 종사자 중 23.0%로 지속적으로 하락
- 서울의 종사자 수는 2019년 522만 명으로 나타남. 지난 10년 간 서울의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외 지역의 종사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4]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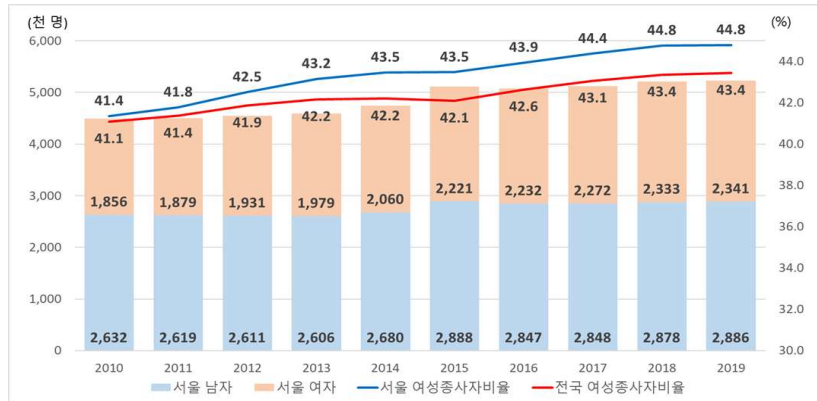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 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 최근 44.8%로 상승 추세 지속

- 지난 10년 간 서울의 여성 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0년 41.4%에서 최근 2019년 44.8%로 증가함
- 남성 종사자는 288만 명이고, 여성 종사자는 234만 명으로 나타남. 남성 종사자 수는 증가세가 미미하지만, 여성 종사자 수는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남

[그림-5] 성별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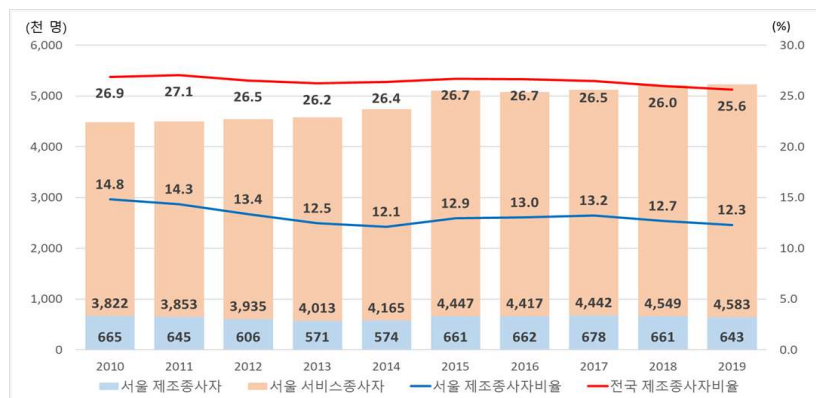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 2014년 이후 12~13% 수준 유지

-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10년 이후 하락하다가, 2014년 이후 12~13%에서 등락하고 있음. 최근 제조업 종사자 수는 64만 명 수준
-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15년 눈에 띄는 증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최근 458만 명 수준임

[그림-6]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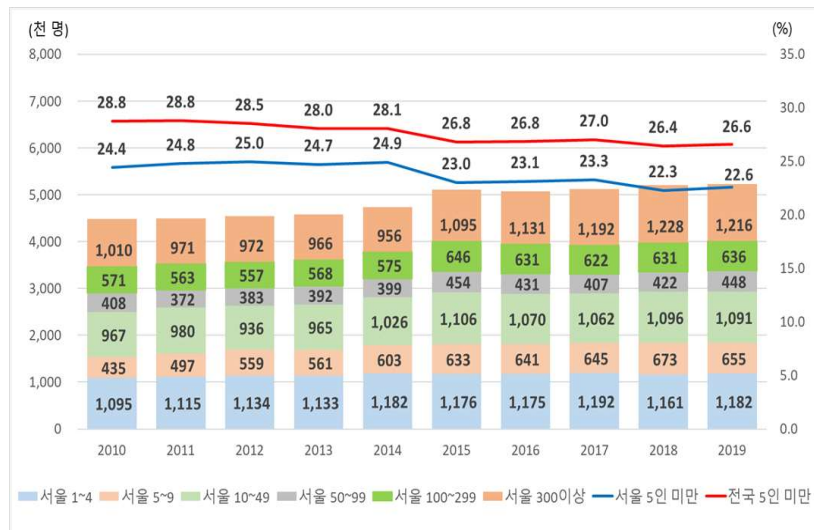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5인 미만 종사자 비중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최근 23% 수준 유지

- 5인 미만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간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0년 24.4%에서 최근 2019년 22.6%로 하락
- 5인 미만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 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5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최근 300인 이상은 가장 큰 규모의 종사자 수를 보이고 있음

[그림-7] 기업규모별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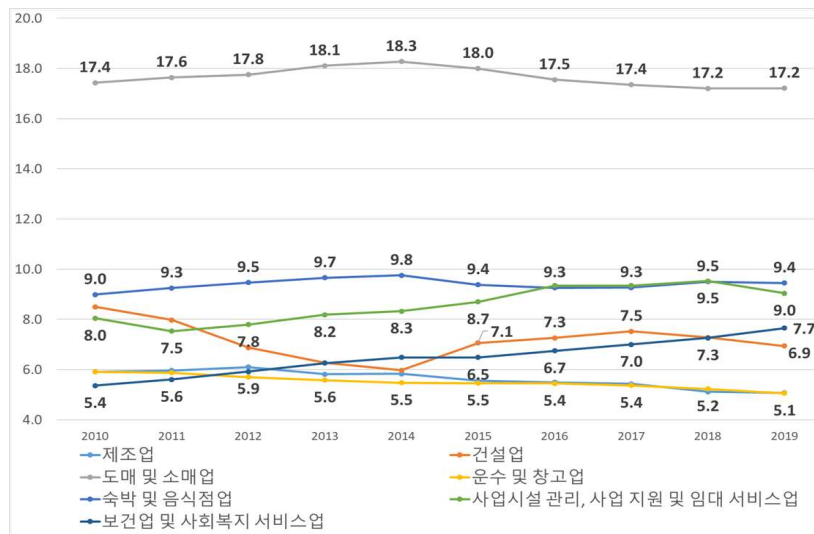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에서 종사자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 (제조업) 전체 종사자 중 과거 6% 수준이었다가 최근 2019년 5% 수준으로 하락함
- (건설업) 전체 종사자 중 2010년 8.5% 수준이었다가 2014년까지 5.5%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7% 수준까지 상승함

- (도매 및 소매업) 2014년까지 종사자 비중이 18.3%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하락 추세임. 최근 17.2%까지 하락함
-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10년 6% 수준이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5.1% 수준임
- (숙박 및 음식점업) 2014년까지 종사자 추이가 9.8%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 9.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사업시설·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9% 수준까지 증가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지난 10년 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10년 전 가장 낮은 비중이었다가, 최근 7.7%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보다 높은 비중으로 상승함

[그림-8] 주요 산업별 종사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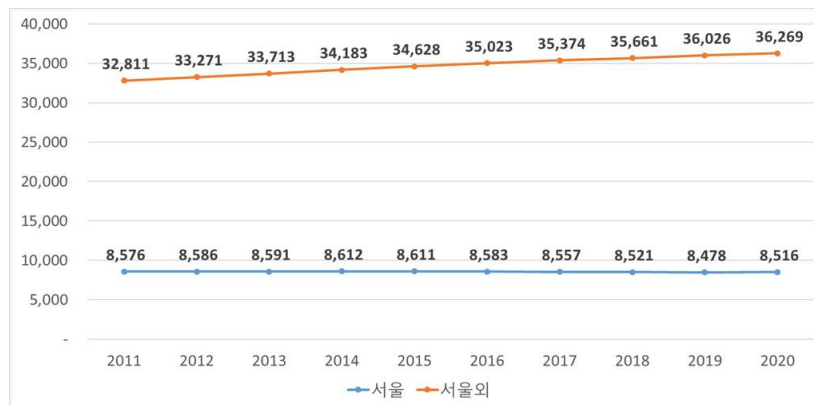
Ⅲ. 노동 동향

1. 경제활동인구 동향

□ 서울의 15세이상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정체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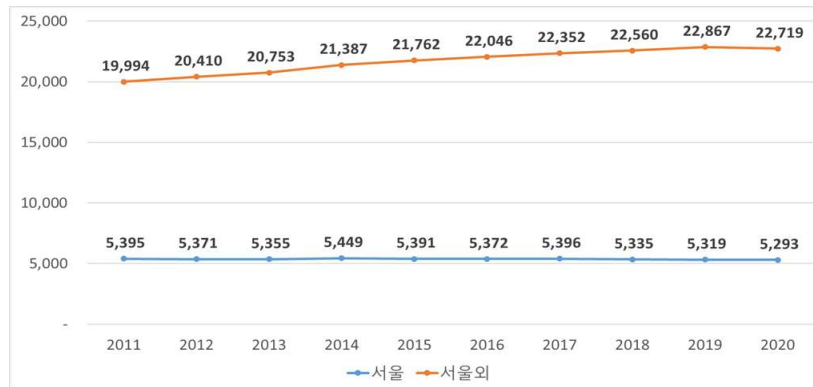
- (15세이상인구)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15세이상인구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 2011년 857만 명에서 최근 851만 명 수준으로 6만 명 감소함. 반면, 전국의 15세 이상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도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하락해왔음. 2011년 539만 명이던 경제활동인구가 2020년 529만 명 수준으로 10만 명 감소함. 반면,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0년 간 32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9] 15세이상인구(천명) - 전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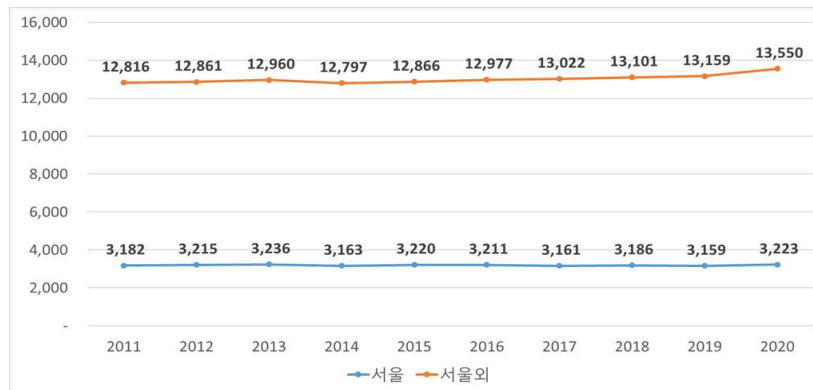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10] 경제활동인구(천명) - 전체 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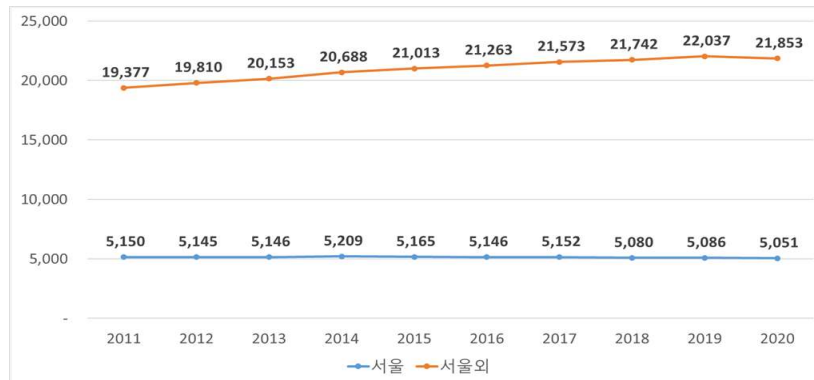
[그림-11] 비경제활동인구(천명) - 전체 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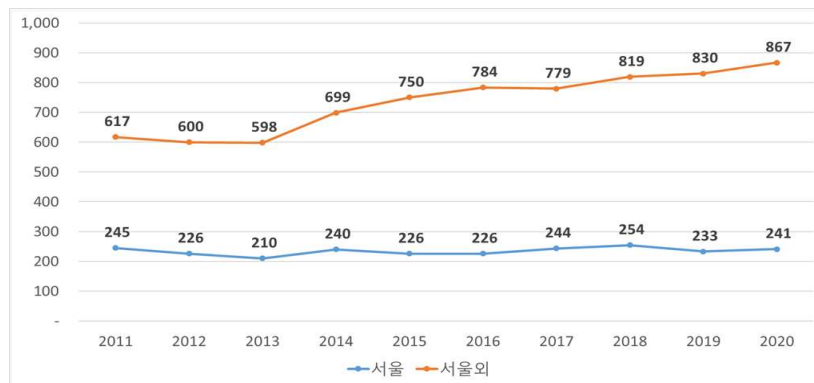
- 취업자는 510만 명 밑으로 조금씩 감소세이나, 실업자는 24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취업자) 서울의 취업자는 지난 10년 간 조금씩 감소중이며, 510만 명에서 2020년 최근 505만 명으로 5만 명 정도 감소함
 - (실업자) 실업자는 지난 10년 간 24만 명 전후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12] 취업자(천명) - 전체 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13] 실업자(천명) - 전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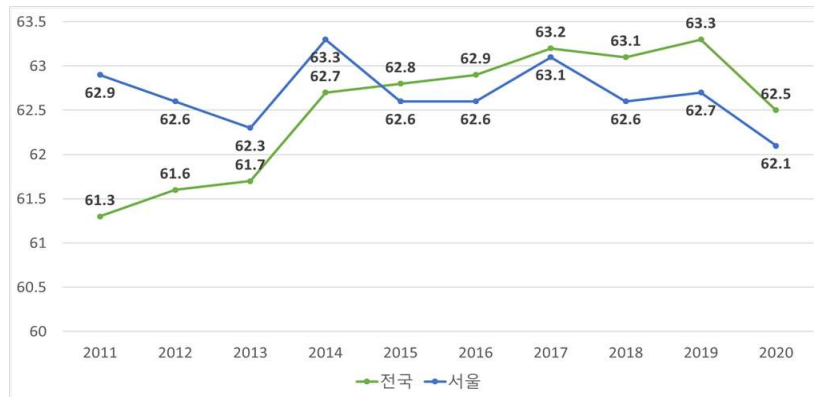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하락 추세이고, 15~64세 고용률과 실업률은 상승 추세임

- (경제활동참가율)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간 등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0년 가장 최근 62.1%를 보임. 반면,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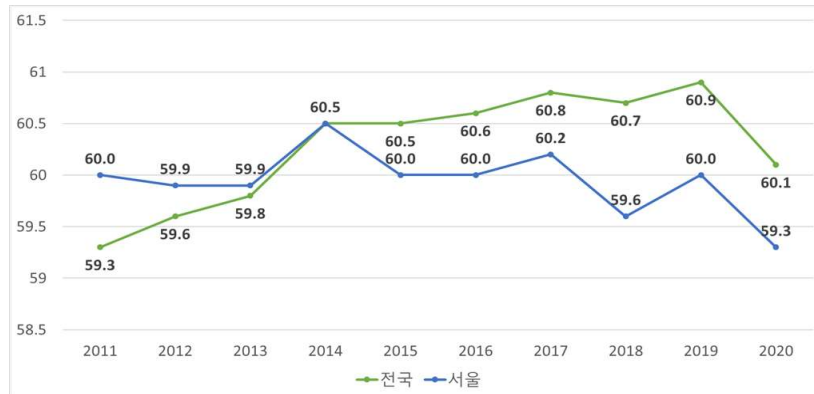
고 있음. 이는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정체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14]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 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15] 고용률(%) - 전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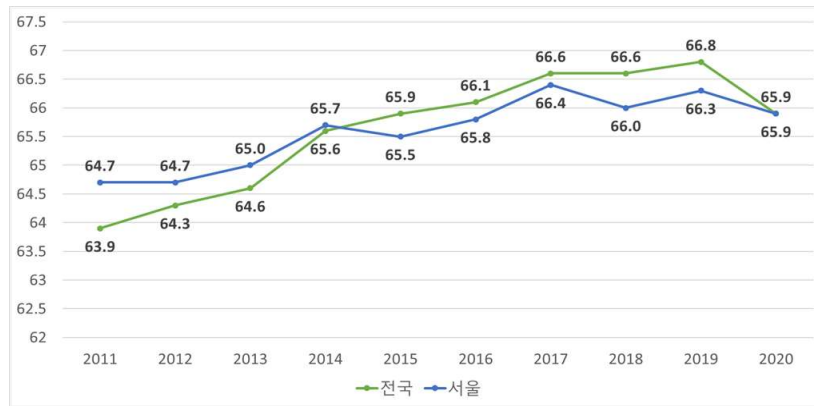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서울의 고용률은 지난 10년 간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최근 2020년 고용률은 59.3%까지 하락함. 다만, 15~64세 고용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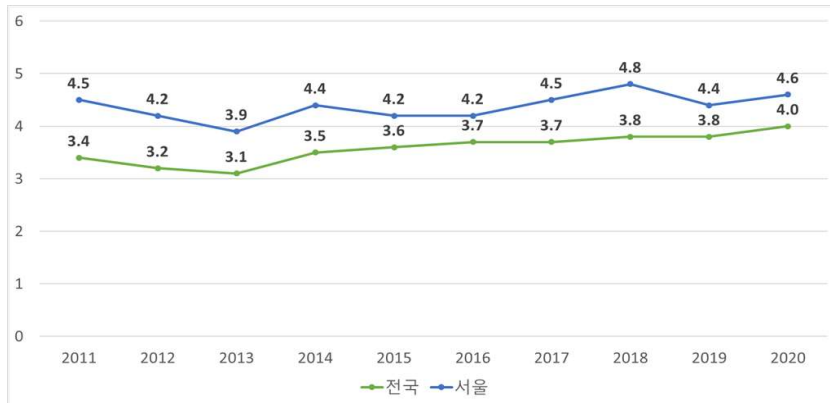
- (실업률)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또한, 2013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2020년 4.6%로 나타남.

[그림-16] OECD기준 15~64세 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17] 실업률(%) - 전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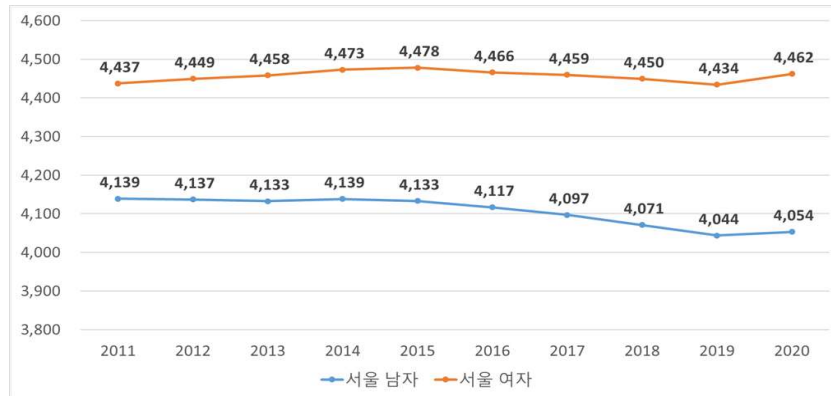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인구로 정의함.

1) 성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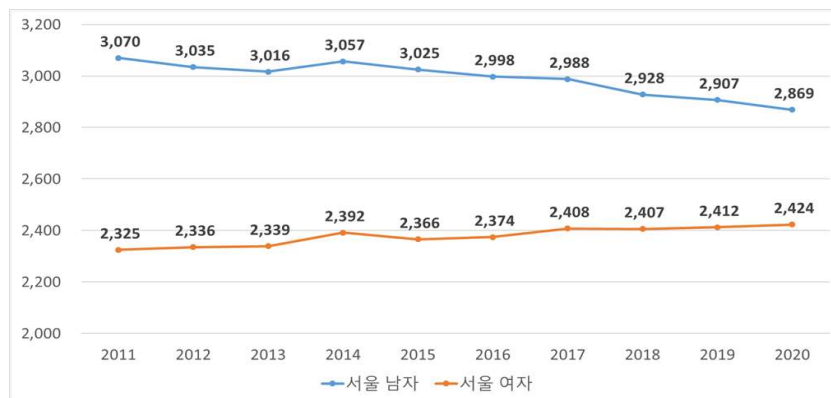
□ 서울에서 여성은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반면, 남성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18] 15세이상인구(천명) - 성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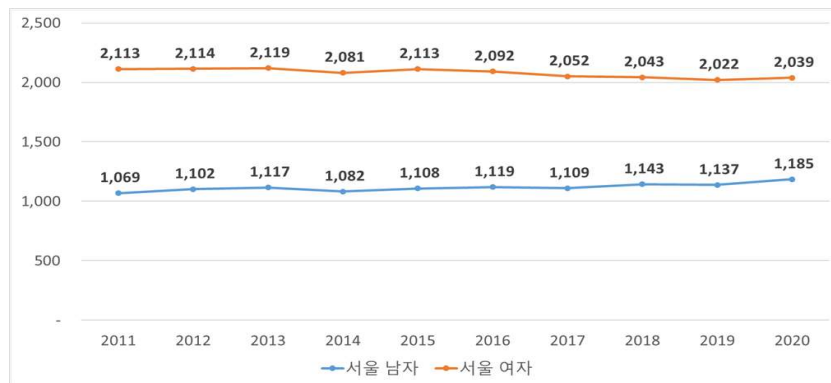
[그림-19] 경제활동인구(천명) - 성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5세이상인구) 남성의 15세이상인구는 지난 10년 간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줌. 2011년 413만 명이던 것이 2020년 405만 명으로 8만 명이 감소함. 반면, 여성은 등락을 보이는데, 2011~2015년 사이에는 증가세를, 2015~2019년에는 감소세를 보임. 다만, 2020년엔 다시 증가함. 2020년 여성의 15세이상인구는 446만 명임
- (경제활동인구)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0년 간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2011년 307만 명의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2020년 286만 명으로 21만 명이 줄어들고 있음. 반면, 여성은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1년 232만 명에서 2020년 242만 명으로 10만 명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감소 추세를 보임

[그림-20] 비경제활동인구(천명)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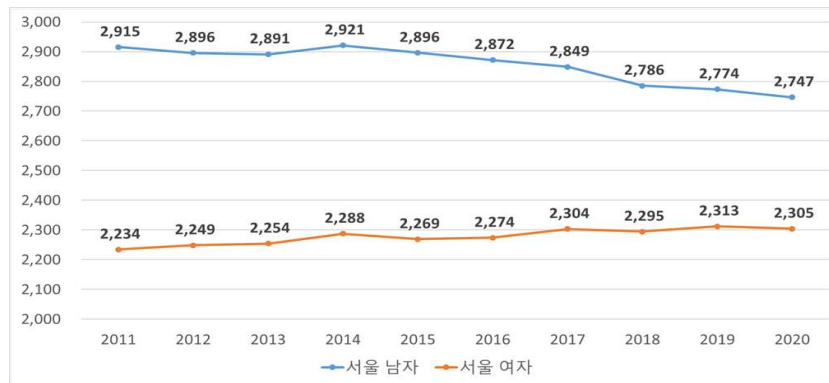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남성 취업자는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는 한편, 여성은 증가 추세를 보임. 2011년 남성 취업자는 291만

명이었지만 2020년 274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고, 여성은 223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7만 명 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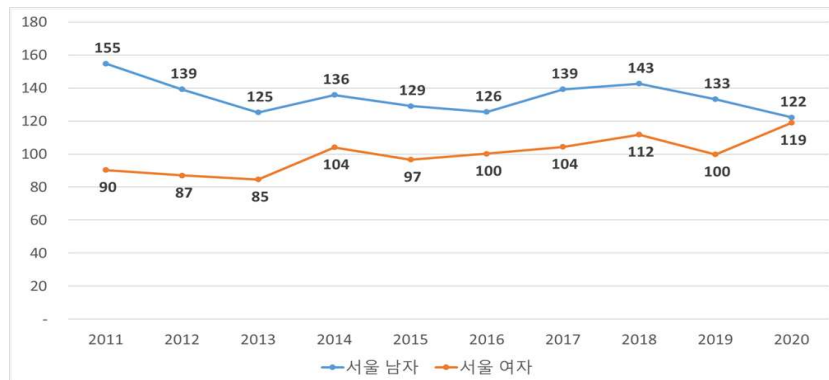
- (실업자) 남성 실업자는 2011~2013년 사이에 빠르게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130만 명 전후를 등락하고 있음. 여성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1년 90만 명이다가 2020년 119만 명으로 처음 남성과 여성의 실업자 수가 거의 유사해짐.

[그림-21] 취업자(천명) - 성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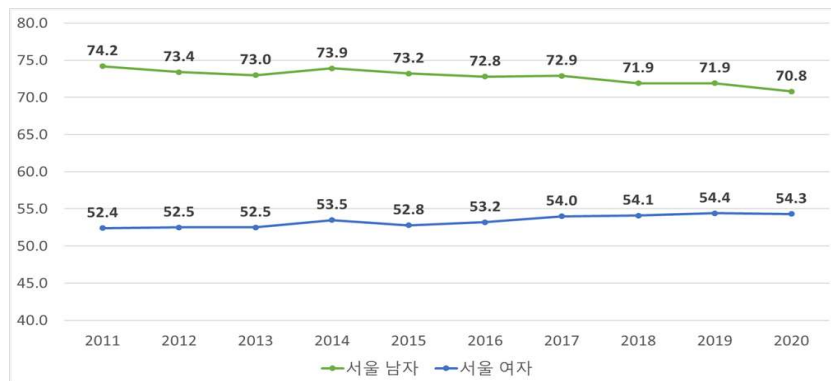
[그림-22] 실업자(천명) - 성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서울에서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남성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간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2011년 74.2%에서 최근 2020년 70.8%까지 감소함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52.4%에서 최근 2020년 54.3%로 상승함
 - 서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23]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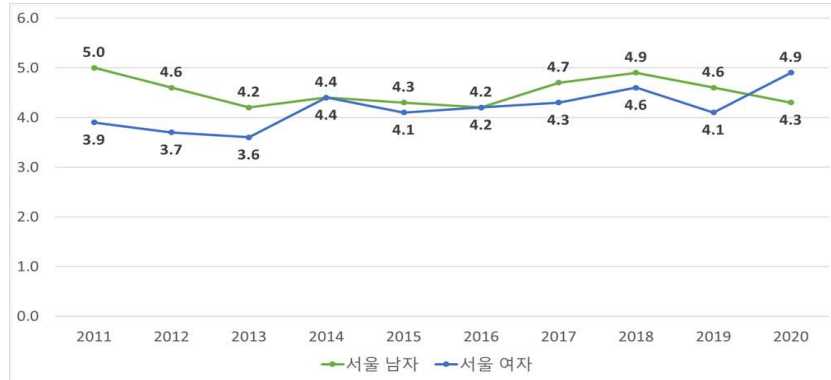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 남성의 실업률은 4.5%를 전후 횡보를 나타내고 있음. 여성의 실업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 후반대에서 최근 4.9%로 남성 실업률을 추월함.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지만, 그에 맞는 직업매칭이 적절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률은 감소하는 한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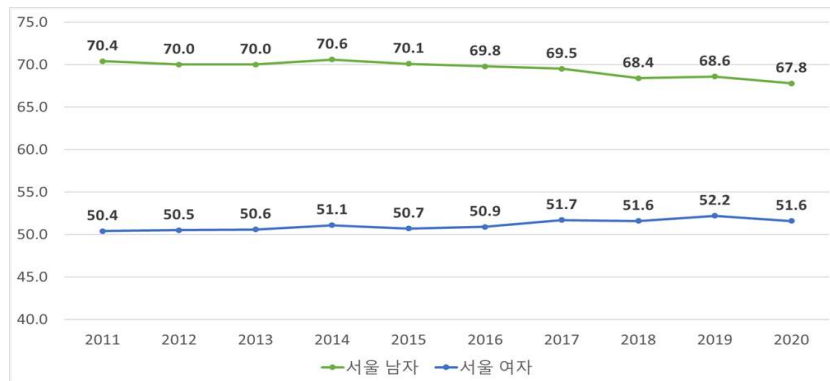
성은 증가 추세를 보임. 2011년 여성 고용률은 50.4%였지만 최근 52% 수준까지 상승함.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에서 68% 수준까지 하락함. 한편, 여성의 고용률 상승은 15~64세 사이에서도 두드러지는데,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4~5%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3%에서 58.5%로 상승함

[그림-24] 실업률(%)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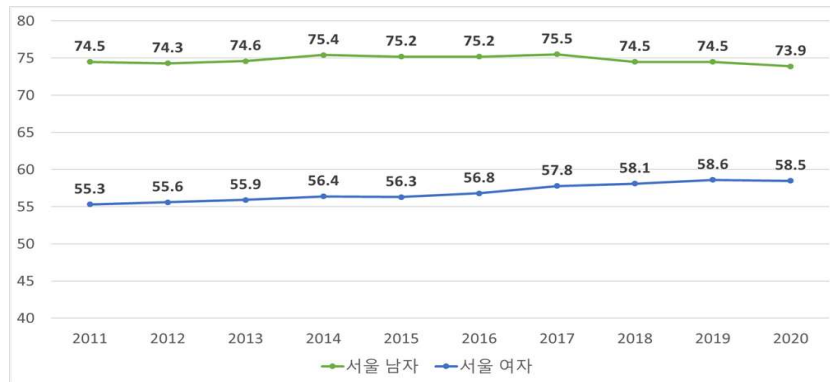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25] 고용률(%) - 성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26] OECD기준 15~64세 고용률(%)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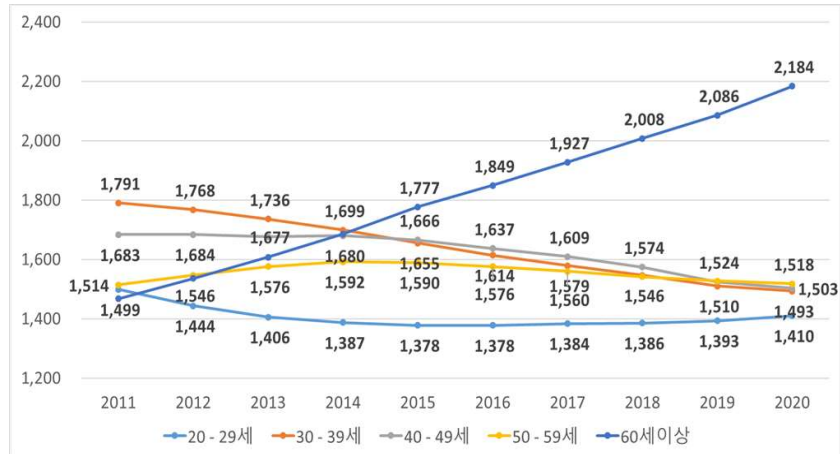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연령별

□ 서울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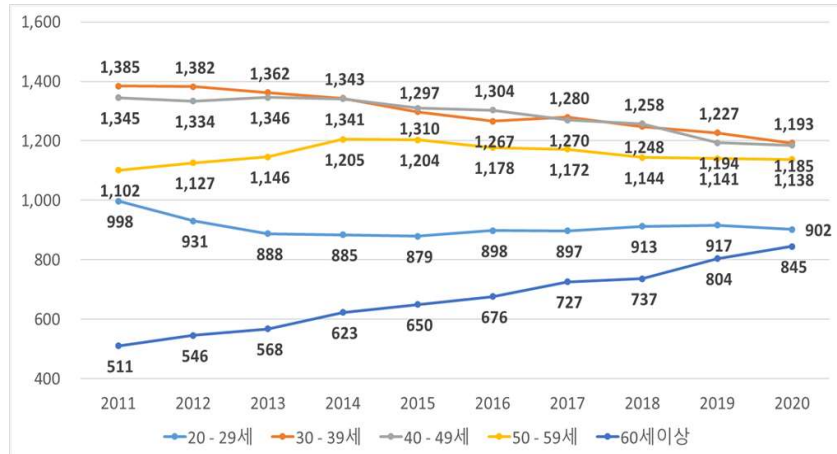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노인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서울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0년 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2011년 51만 명에서 최근 84만 명으로, 거의 청년의 경제활동인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향후 노인의 경제활동은 청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반면, 다른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인구는 정체이거나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취업자와 실업자)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취업자와 실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른 인구집단은 조금씩 감소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 65세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30대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경향이 눈에 띄는 반면, 나머지 20대, 40대, 50대에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27] 15세이상인구(천명)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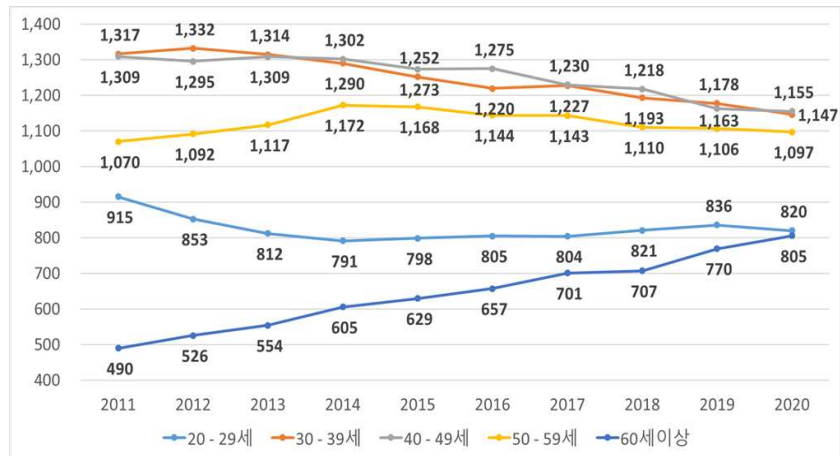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28] 경제활동인구(천명)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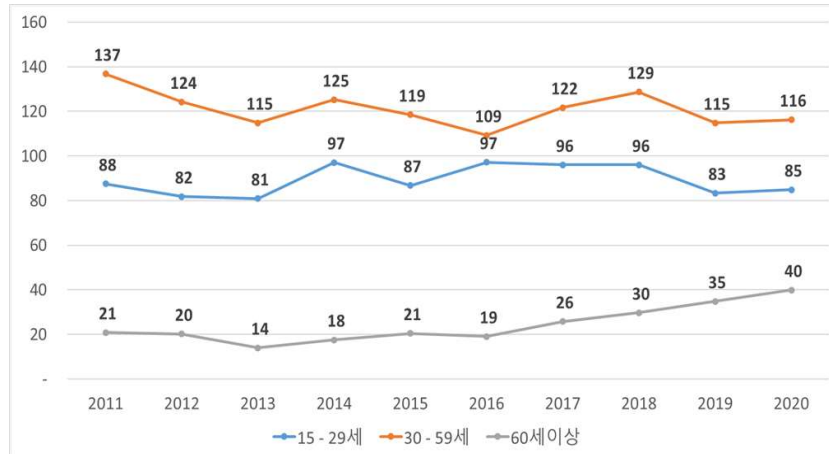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29] 취업자(천명)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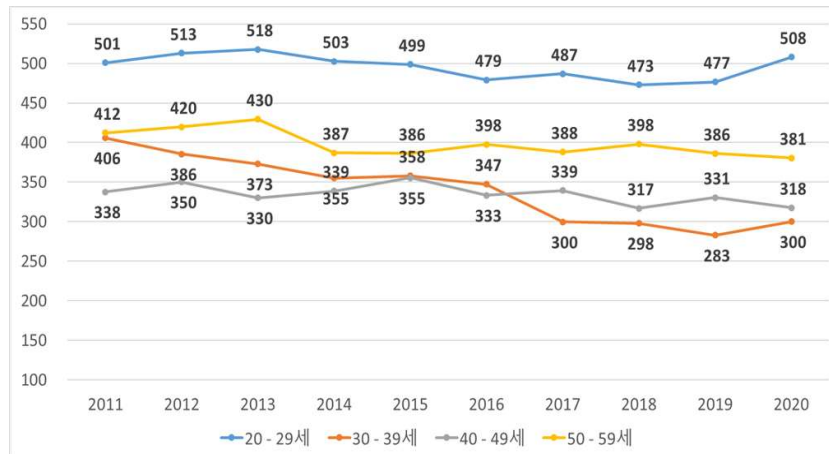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30] 실업자(천명) - 연령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31] 비경제활동인구(천명)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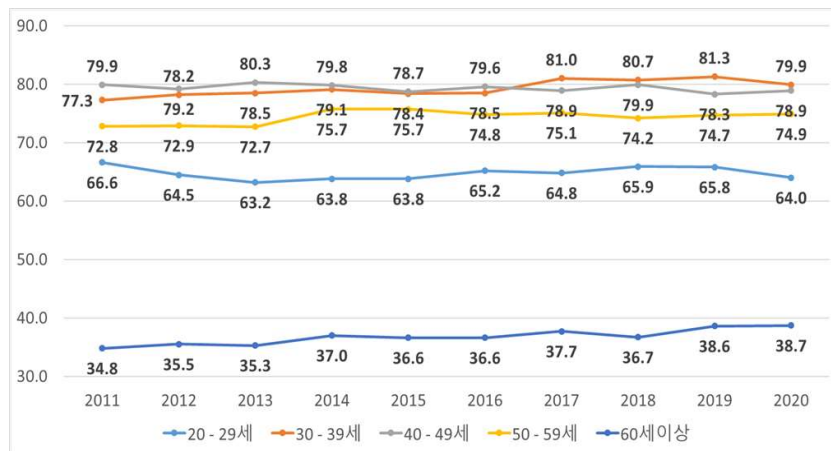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서울에서 30대와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로 지난 10년 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주된 특징으로 30대,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임. 30대는 2011년 77.3%였다가 최근 80%에 육박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 연령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음. 30대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60세 이상은 가파르게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34.8%에서 최근 38.7%까지 상승함. 노인층은 취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고용률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0대, 60대 이상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중년들의 고용률도 지난 10년 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실업률) 실업률은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1년 8% 대에서 10% 전후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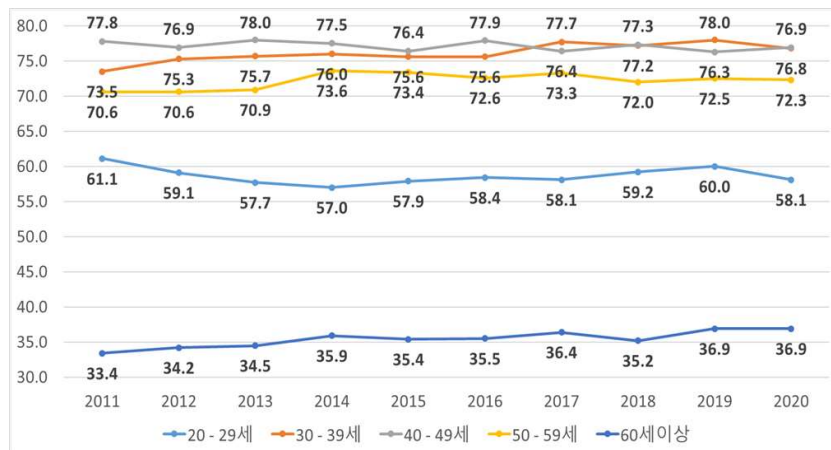
최근 2020년은 9.1%를 보이고 있음. 한편, 서울의 노인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4.7%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그림-32] 경제활동참가율(%)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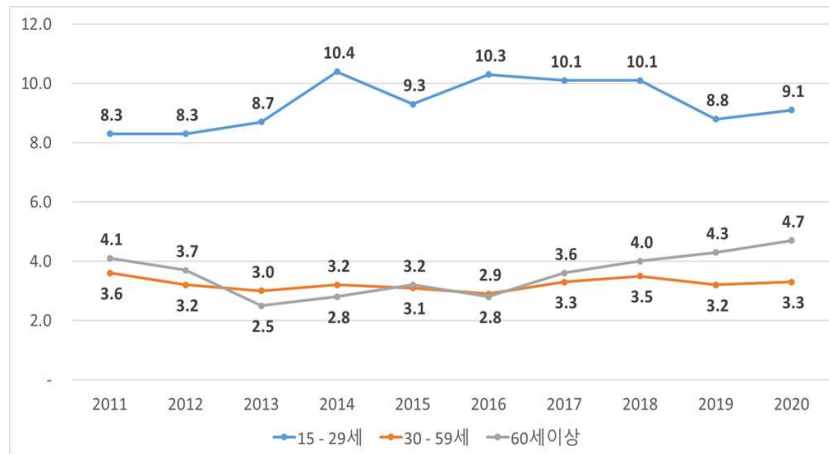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33] 고용률(%) - 연령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34] 실업률(%)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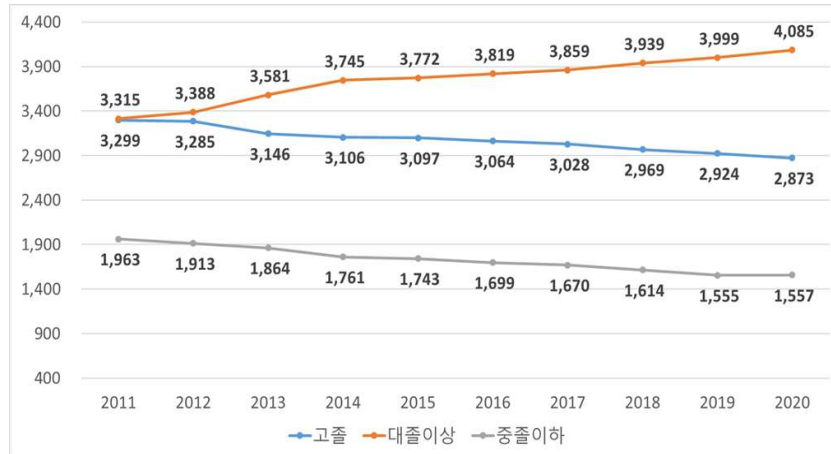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교육수준별

□ 서울에서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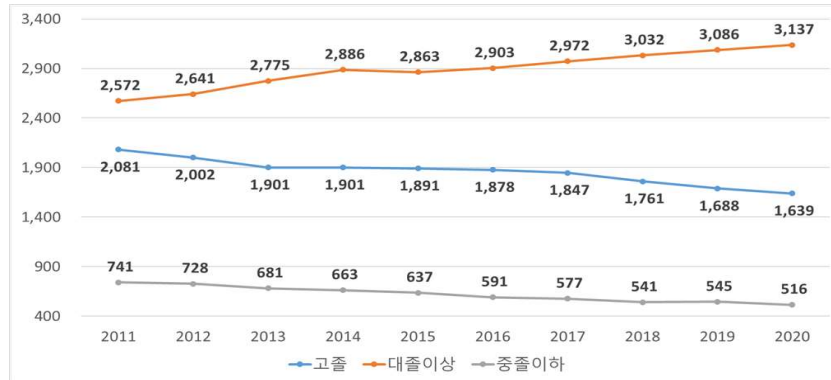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서울의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고졸과 중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대졸이상의 취업자는 2011년 246만 명에서 최근 300만 명을 넘어섬. 고졸의 취업자는 197만 명에서 2020년 154만 명으로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 고졸과 중졸이하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 이는 전체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반면, 대졸이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74만 명에서 최근에 94만 명으로 나타남. 향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35] 15세이상인구(천명)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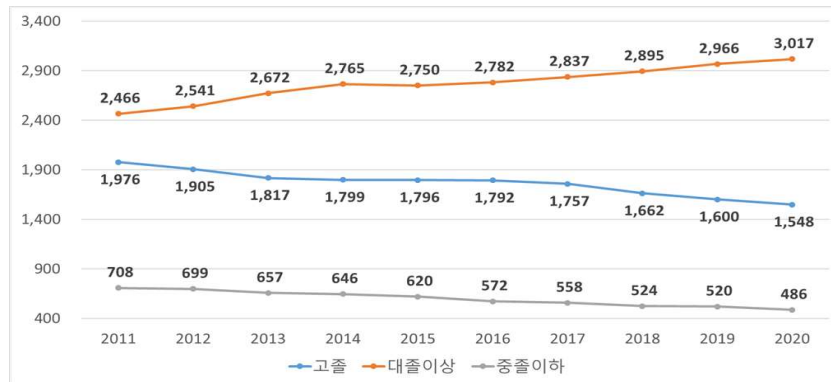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36] 경제활동인구(천명)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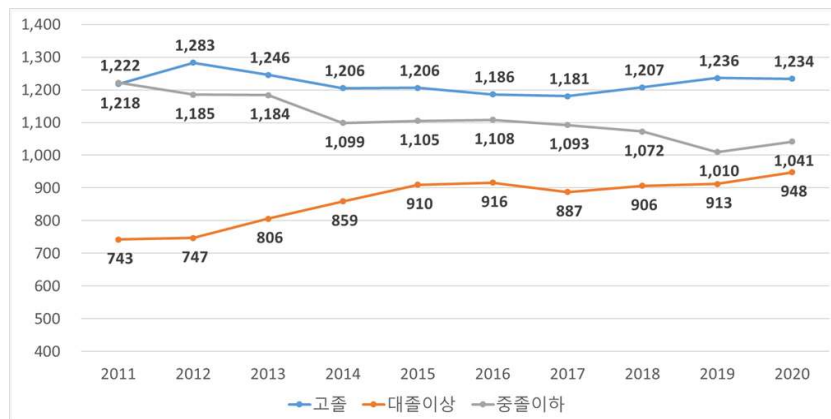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37] 취업자(천명) - 교육수준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38] 비경제활동인구(천명)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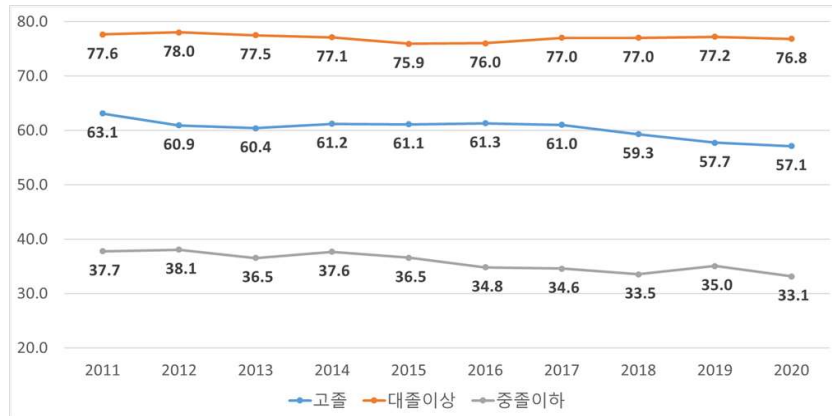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서울에서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졸과 중졸 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변화없이 77%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졸은 2011년 63.1%에서 57.1%로 하락하였고 중졸 이하는 37.7%에서 33.1%로 하락함. 고졸과 중졸 이하는 전체

인구수와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대졸 이상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유사한 정도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39] 경제활동참가율(%)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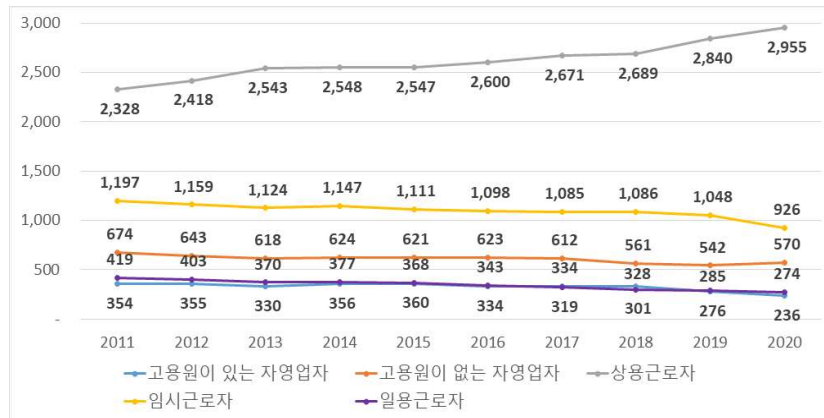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종사상 지위별

□ 상용직 취업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다른 종사상 지위에서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지난 10년 동안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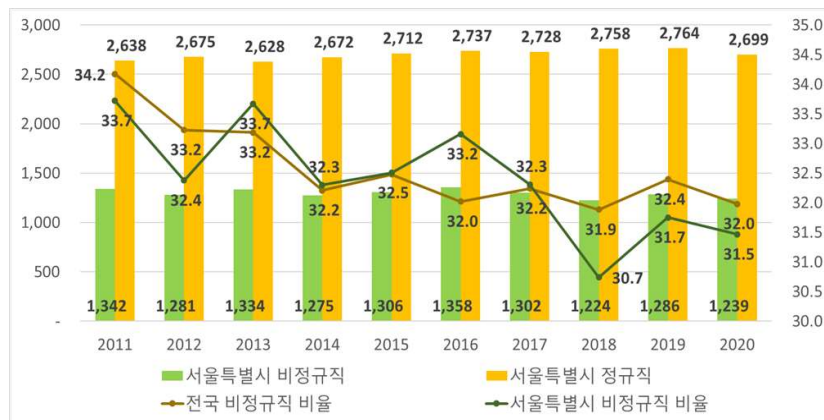
- (취업자) 서울은 지난 10년 동안 상용근로자가 232만 명에서 29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조금씩 하락하였고, 자영업자들도 지속적으로 하락함
- (비정규직) 비정규직 규모도 2011년 34.2%에서 2020년 최근 31.5%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2011년 134만 명에서 최근 123만 명으로 감소함

[그림-40] 취업자(천명) - 종사상 지위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41] 비정규직 규모(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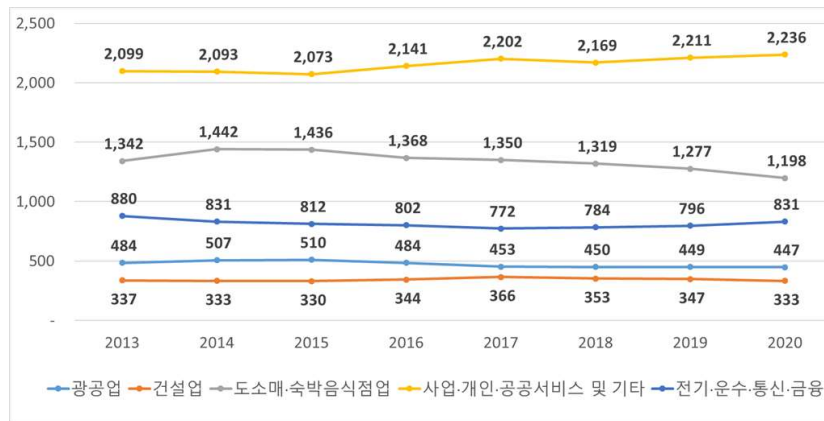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업종별

- 서울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영업이 주되게 나타남. 이는 보건복지업의 영향으로 보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015년 이후 업종에서 주요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200만 명 수준에서 223만 명으로 증가함. 이는 보건복지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소매·숙박음식점) 영세소상공인과 관련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서울시 내 취업자는 2015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140만 명 수준에서 최근 12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짐

[그림-42] 취업자(천명) - 업종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광공업 : 광업, 제조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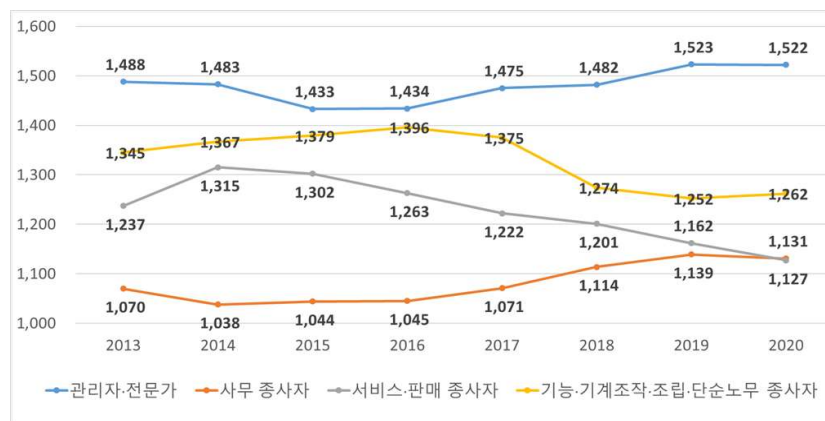
□ 관리전문가와 사무직 종사자는 증가 추세인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와 기능제조조립종사자는 줄어들고 있음

- (관리전문가·사무직) 관리전문직과 사무종사자는 2015~2016년을 분기

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관리전문가는 2016년 143만 명에서 2020년 152만 명까지 증가함. 사무종사자는 2016년 104만 명에서 2020년 112만 명으로 증가함

- (서비스판매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 131만 명을 최고점으로 최근 113만 명까지 하락함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기능기계조작과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2016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2018년 급격히 하락한 이후 1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43] 취업자(천명) - 직종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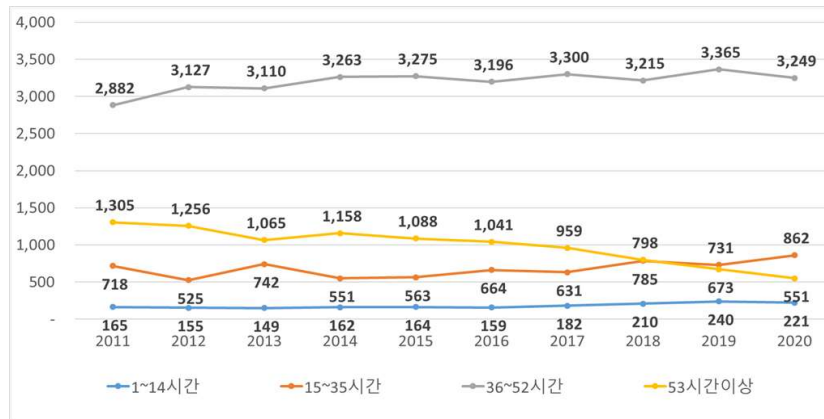
7) 취업시간별

□ 장시간 취업자는 줄어들고, 풀타임과 (초)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함

- (53시간 이상)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지난 10년 간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2011년 130만 명에 달했던 것이 2020년 최근 55만 명으로 감소함

- (36~52시간) 36~52시간 근로하는 취업자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소폭 상승하고 있음. 2011년 288만 명이던 풀타임 근로자는 33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함
- (1~14시간, 15~35시간) 초단시간과 단시간 노동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 특히, 15~35시간의 단시간 취업자는 2017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장시간 근로자를 넘어섬. 2017년 이전에는 70~55만 명 사이를 횡보하다가, 2020년 86만 명으로 증가함

[그림-44] 취업자(천명) - 취업시간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임금노동자 동향

□ 2020년 서울의 임금노동자는 중고령자, 남성, 고학력에서 증가하고, 타지역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도 증가

- 서울의 임금노동자 비중은 55~64세에서 3.0%로 상승하고, 35~44세는 1.9%로 하락함
- 남성 임금노동자 비중은 서울과 전국 모두에서 전년대비 0.4%p 상승
- 학력은 서울에서 중학교 이하 9.9% 하락, 고등학교 4.1% 하락, 대학

교 2.4% 상승, 대학원 이상 2.5% 상승으로 전국보다 고등학교 이하에서 감소율이 더 높고, 대학교는 반대로 증가했음. 대학원 이상은 서울보다 전국에서 증가율이 더 높음

<표-6> 임금노동자의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1,311 (31.8)	1,301 (31.7)	-10 (-0.1)	-0.8	5,830 (28.7)	5,602 (28.1)	-229 (-0.6)	-3.9
	35~44세	932 (22.6)	914 (22.3)	-18 (-0.3)	-1.9	4,804 (23.7)	4,658 (23.4)	-146 (-0.3)	-3.0
	45~54세	948 (23.0)	937 (22.8)	-10 (-0.2)	-1.1	4,988 (24.6)	4,906 (24.6)	-81 (0.1)	-1.6
	55~64세	648 (15.7)	667 (16.3)	20 (0.5)	3.0	3,307 (16.3)	3,365 (16.9)	59 (0.6)	1.8
	65세 이상	283 (6.9)	285 (6.9)	2 (0.1)	0.7	1,372 (6.8)	1,387 (7.0)	15 (0.2)	1.1
성별	남	2,166 (52.6)	2,175 (53.0)	9 (0.4)	0.4	11,264 (55.5)	11,136 (55.9)	-127 (0.4)	-1.1
	여	1,954 (47.4)	1,929 (47.0)	-25 (-0.4)	-1.3	9,037 (44.5)	8,783 (44.1)	-255 (-0.4)	-2.8
학력	중학교 이하	372 (9.0)	335 (8.2)	-37 (-0.9)	-9.9	2,242 (11.0)	2,044 (10.3)	-198 (-0.8)	-8.8
	고등학교	1,059 (25.7)	1,015 (24.7)	-44 (-1.0)	-4.1	6,471 (31.9)	6,279 (31.5)	-192 (-0.4)	-3.0
	대학교	2,303 (55.9)	2,358 (57.4)	55 (1.6)	2.4	10,284 (50.7)	10,245 (51.4)	-38 (0.8)	-0.4
	대학원 이상	387 (9.4)	397 (9.7)	10 (0.3)	2.5	1,305 (6.4)	1,351 (6.8)	46 (0.4)	3.5
소재지	거주지 임금노동자	3,526 (85.6)	3,495 (85.1)	-31 (-0.4)	-0.9	-			
	유출 임금노동자	595 (14.4)	610 (14.9)	15 (0.4)	2.5				
	유입 임금노동자	1,326	1,266	-59	-4.5				
	총계	4,121	4,105	-16	-2.3				20,301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 거주지 임금노동자는 0.9% 하락, 타지역으로 유출된 임금노동자는 2.5% 상승, 서울로 유입된 임금노동자는 4.5% 하락

□ 서울은 보건복지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 임금노동자 비율 증가

- 전국과 달리, 서울의 임금노동자 산업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도소매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은 많은 특징을 보임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과 서울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영역은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는 8.8%에서 9.2%로 상승, 전문기술서비스업 임금노동자는 8.4%에서 8.9%로 상승, 정보통신업 임금노동자도 7.4%에서 7.7%로 상승

<표-7>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도소매업 (14.3)	도소매업 (13.9)	제조업 (19.3)	제조업 (19.5)
2	제조업 (8.9)	보건복지서비스 (9.2)	도소매업 (11.3)	도소매업 (11.1)
3	보건복지서비스 (8.8)	제조업 (9.1)	보건복지서비스 (10.2)	보건복지서비스 (10.8)
4	교육서비스 (8.6)	전문기술서비스 (8.9)	건설업 (7.8)	건설업 (7.7)
5	전문기술서비스 (8.4)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7.7)	교육서비스업 (7.4)
6	음식숙박업 (7.8)	정보통신업 (7.7)	음식숙박업 (6.9)	음식숙박업 (6.2)
7	정보통신업 (7.4)	음식숙박업 (6.9)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9)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20년 서울의 임금노동자 취업형태는 임시일용직과 저임금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감소하고, 단시간 노동자는 큰 폭으로 증가

<표-8> 취업형태별 임금노동자의 구성

(천 명, %)

취업형태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시일용	1,348 (32.7)	1,196 (29.1)	-152 (-3.6)	-11.3	6,300 (31.0)	5,518 (27.7)	-783 (-3.3)	-12.4
기간제	766 (18.6)	848 (20.7)	82 (2.1)	10.7	3,905 (19.2)	3,890 (19.5)	-15 (0.3)	-0.4
단시간	737 (17.9)	1,655 (40.3)	917 (22.4)	124.4	3,662 (18.0)	7,822 (39.3)	4,159 (21.2)	113.6
저임금	787 (19.1)	771 (18.8)	-16 (-0.3)	-2.0	2,566 (12.6)	3,022 (15.2)	457 (2.5)	17.8
최저임금 미만	598 (14.5)	375 (9.1)	-223 (-5.4)	-37.3	3,046 (15.0)	1,925 (9.7)	-1,121 (-5.3)	-36.8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임시일용직⁴⁾은 전년대비 3.6%p 하락, 기간제근로자⁵⁾는 전년대비 2.1%p 상승, 단시간노동자⁶⁾는 전년대비 22.4%p 상승, 저임금노동자⁷⁾는 전년대비 0.3%p 하락,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5.4%p 하락
-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 증가 현상은 서울지역 노동시장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자체만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은 자발적(혹은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높아져 표준적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4) 직장 내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임금노동자

5)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노동자

6)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임금노동자

7) 평균임금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19~20년 166.7만원) 미만인 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미만은⁸⁾은 전년도에 비해 5.4%p 큰 폭으로 하락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비자발적인 실직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서울의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 규모는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어나며, 특수지역보험 가입자는 감소

<표-9>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2,773 (67.3)	2,909 (70.9)	136 (3.6)	4.9	14,001 (69.0)	14,401 (72.3)	400 (3.3)	0.0
	임시 일용	1,348 (32.7)	1,196 (29.1)	-152 (-3.6)	-11.3	6,300 (31.0)	5,518 (27.7)	-783 (-3.3)	-0.1
고용 보험	가입	2,898 (70.3)	3,036 (74.0)	138 (3.6)	4.8	13,989 (68.9)	14,401 (72.3)	412 (3.4)	2.9
	미가입	1,065 (25.8)	925 (22.5)	-140 (-3.3)	-13.2	5,143 (25.3)	4,398 (22.1)	-745 (-3.3)	-14.5
	특수 지역	158 (3.8)	144 (3.5)	-14 (-0.3)	-9.1	1,169 (5.8)	1,120 (5.6)	-49 (-0.1)	-4.2
평균임금		285.1	295.5	10.3	3.6	266.5	273.7	7.2	2.7
평균근로시간		40.1	37.0	-3.1	-7.8	40.0	37.1	-2.9	-7.2
시간당임금		16,536	19,233	2,698	16.3	15,378	17,810	2,432	15.8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상용직 규모는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규모는 감소
-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3.6%p 상승, 미가입자는 3.3%p 하락, 특

8)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8월 자료는 전국 319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9%p 하락한 것으로 분석

수직역보험 가입자는 0.3%p 하락

- 서울의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은 295.5만 원으로 10.3% 상승,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3.1시간 감소, 시간당임금은 19,233원으로 2,698원 증가
- 서울은 전국보다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많고, 평균근로시간은 적으며, 시간당임금은 1,423원 더 많음

3. 노동조합 동향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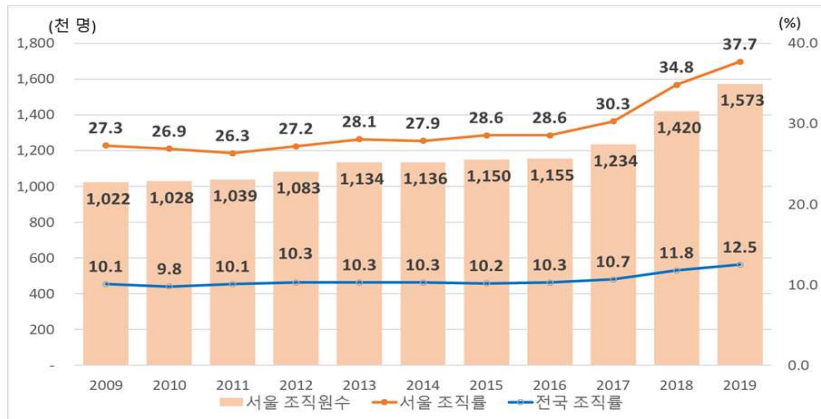
□ 서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음. 그러나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미미함

- (조직률) 서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9~2016년 사이엔 26~28%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2019년 최근 37.7%를 보임¹⁰⁾. 서울의 조직원수는 157만 명으로 조사됨
- (성별 조직률) 성별로 나누어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남성의 조직률이 상승하여 전체 조직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2016년 이후부터 남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20년 43.3%로 상당히 높은 반면, 여성의 조직률은 16.0%로 약간의 상승을 보임

9)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음. 이는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조합이 변경·해산 등 사유 발생 시 신고한 자료, 전년도 말 기준 행정관청에 보고한 정기현황통보 내용 등을 분석함. 단, 초기업노조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함. 전국중앙노조가 서울에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지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서울의 노동조합 가입자로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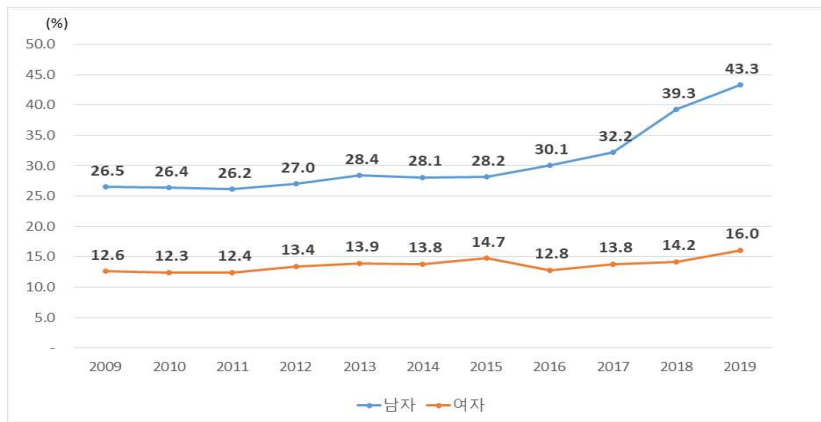
10)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조합원/(임금노동자+공무원)*100"로 산출됨. 다만, 서울의 조직대상근로자(임금노동자+공무원)는 확인되지 않아, 위 그래프에선 임금노동자를 분모로 사용하여 추정함. 이는 최소추정으로 만약 서울의 조직대상근로자가 산출되면 위 추정치보다 조직률이 상승할 것임

[그림-45] 노동조합 조직률(추정치)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그림-46] 성별 노동조합 조직률(추정치)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IV.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

1. 인적속성 구분

1) 청년 노동자¹¹⁾

(1) 청년의 경제활동

□ 15~34세 인구 감소,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하락

- 15~34세 인구는 255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6천명(0.2%) 감소
-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140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20만명(1.4%)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4천명 증가
- 취업자는 전년대비 17만명 감소, 실업자는 12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4천명 감소, 실업률은 8.7%로 전년대비 1.6%p 하락

<표-10>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천 명, %)

청년 경제활동상태 (주요 고용지표)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15~34세	2,564	2,558	-6	-0.2	12,364	12,217	-147	-1.2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427 (55.7)	1,407 (55.0)	-20 (-0.7)	-1.4	6,442 (52.1)	6,200 (50.7)	-242 (-1.4)	-3.8
비경제활동인구	1,137	1,151	14	1.2	5,922	6,018	95	1.6
취업자 (고용률)	1,422 (55.5)	1,405 (54.9)	-17 (-0.5)	-1.2	6,370 (51.5)	6,144 (50.3)	-226 (-1.2)	-3.6
실업자 (실업률)	147 (10.3)	123 (8.7)	-24 (-1.6)	-16.6	640 (9.9)	489 (7.9)	-151 (-2.0)	-23.6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11) 연령이 15~34세인 임금노동자

□ 서울의 청년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중은 증가, 비임금노동자 감소

- 전년대비 서울의 청년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모두 감소
- 청년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는 92.6%로 전년대비 0.4%p 상승, 비임금노동자는 7.4%로 전년대비 0.4%p 하락
- 전년대비 전국의 임금노동자 비중은 0.3%p 하락,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0.3%p 상승

<표-11> 종사상 지위별 청년 취업자

(천 명, %)

종사상지위 (취업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311 (92.2)	1,301 (92.6)	-10 (0.4)	-0.8	5,830 (91.5)	5,602 (91.2)	-229 (-0.3)	-3.9
비임금노동자	111 (7.8)	104 (7.4)	-7 (-0.4)	-6.1	540 (8.5)	542 (8.8)	2 (0.3)	0.4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 청년 임금노동자의 동향

□ 서울의 청년 임금노동자는 30~34세, 남성, 전문대졸에서 증가하였고, 15~29세, 여성, 고등학교 이하, 4년제 대학이상 학력에서 감소

- 2020년 서울의 30~34세 임금노동자는 52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명 증가(1.5%p 상승)
- 서울의 청년 여성은 전년대비 1만 1천명 감소하여 1.5% 하락
- 전문대 학력 비중은 20.6%로 전년보다 2.0%p 상승
- 대학원 이상의 학력 비중은 6.5%로 전년보다 0.9%p 하락
- 서울 거주지 청년 임금노동자는 0.9% 하락, 타지역으로 유출된 청년 임금노동자는 1.3% 상승, 서울로 유입된 청년 임금노동자는 5.7% 하락

<표-12> 청년 임금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19세	30 (2.3)	20 (1.5)	-11 (-0.8)	-35.2	211 (36.1)	124 (22.1)	-87 (-14.1)	-41.3
	20~24세	228 (17.4)	214 (16.4)	-14 (-1.0)	-6.2	1,205 (20.7)	1,075 (19.2)	-130 (-1.5)	-10.7
	25~29세	545 (41.6)	544 (4.8)	-1 (0.2)	-0.2	2,236 (38.3)	2,215 (39.5)	-21 (1.2)	-0.9
	30~34세	508 (38.7)	524 (40.2)	16 (1.5)	3.1	2,179 (37.4)	2,188 (39.1)	9 (1.7)	0.4
성별	남	594 (45.3)	595 (45.7)	1 (0.4)	0.1	3,043 (52.2)	2,963 (52.9)	-80 (0.7)	-2.6
	여	717 (54.7)	706 (54.3)	-11 (-0.4)	-1.5	2,787 (47.8)	2,639 (47.1)	-149 (-0.7)	-5.3
학력	고등학교이하	206 (15.7)	195 (15.0)	-10 (-0.7)	-5.0	1,305 (22.4)	1,211 (21.6)	-93.8 (-0.8)	-7.2
	전문대	244 (18.6)	268 (20.6)	24 (2.0)	10.0	1,344 (23.1)	1,316 (23.5)	-28.5 (0.4)	-2.1
	4년제	765 (58.3)	753 (57.9)	-12 (-0.4)	-1.5	2,907 (49.9)	2,812 (50.2)	-94.9 (0.3)	-3.3
	대학원이상	98 (7.4)	85 (6.5)	-12 (-0.9)	-12.8	274 (4.7)	263 (4.7)	-11.3 (0.0)	-4.1
소재지	거주지 임금노동자	1,158 (88.3)	1,147 (88.1)	-12 (-0.2)	-0.9	-			
	유출 임금노동자	153 (11.7)	155 (11.9)	2 (0.2)	1.3				
	유입 임금노동자	459	433	-26	-5.7				
	임금노동자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전국대비 서울의 청년 임금노동자는 전문기술 및 정보통신업 비중이 큼

- 청년 임금노동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서울에서 도소매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서비스, 음식숙박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순임
- 도소매업 18.4%, 전문기술서비스업 11.3%, 음식숙박업 11.0%, 보건복지서비스업 9.6%, 교육서비스업 9.5%, 정보통신업 9.3%

<표-13> 청년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도소매업 (18.8)	도소매업 (18.4)	제조업 (18.8)	제조업 (19.0)
2	전문기술서비스 (11.2)	전문기술서비스 (11.3)	도소매업 (14.5)	도소매업 (13.8)
3	음식숙박업 (10.9)	음식숙박업 (11.0)	음식숙박업 (10.7)	보건복지서비스업 (10.3)
4	보건복지서비스 (9.6)	보건복지서비스업 (9.6)	보건복지서비스업 (10.0)	음식숙박업 (9.8)
5	교육서비스업 (9.4)	교육서비스업 (9.5)	교육서비스 (8.4)	교육서비스업 (7.7)
6	정보통신업 (9.2)	정보통신업 (9.3)	전문기술서비스 (6.4)	전문기술서비스 (6.8)
7	제조업 (6.6)	제조업 (6.6)	정보통신업 (5.2)	정보통신업 (5.4)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표-14> 청년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936 (71.4)	962 (73.9)	26 (2.6)	2.8	4137 (71.0)	4143 (74.0)	6 (3.0)	0.0
	임시일용	375 (28.6)	339 (26.1)	-36 (-2.6)	-9.6	1693 (29.0)	1459 (26.0)	-234 (-3.0)	-0.1
고용 보험	가입	1,014 (77.4)	1,055 (81.1)	40 (3.7)	4.0	4,321 (74.1)	4,328 (77.3)	7 (3.1)	0.2
	미가입	262 (20.0)	215 (16.5)	-48 (-3.5)	-18.2	1249 (21.4)	1013 (18.1)	-236 (-3.3)	-18.9
	특수지역	35 (2.6)	32 (2.4)	-3 (-0.2)	-7.8	260 (4.5)	261 (4.7)	0 (0.2)	0.2
월평균임금		238.8	244.4	5.6	2.4	224.6	230.4	5.8	2.6
주당 근로시간		39.7	36.4	-3.4	-8.5	39.9	36.8	-3.0	-7.6
시간당 임금		14,028	15,958	1,930	13.8	12,996	14,756	1,760	13.5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청년 임시일용직 감소, 고용보험 미가입자 감소, 임금 증가율은 미미

- 청년 임시일용직은 26.1%로 전년대비 2.6%p 하락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6.5%로 전년대비 3.5%p 하락, 특수지역 임금노동자 2.4%로 전년대비 0.2%p 하락
- 월평균임금은 244.4만 원으로 전년대비 5.6만 원(2.4%) 증가, 주당 근로시간은 36.4시간으로 전년대비 3.4시간(8.5%) 감소, 시간당임금은 15,958 원으로 전년대비 1,930원(13.8%) 증가

2) 여성 노동자

(1) 여성의 경제활동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감소, 실업률은 상승

- 15세이상 여성 인구는 445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2천명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5%로 전년대비 2.3%p 하락
-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대비 0.8%p 하락, 실업률은 6.4%로 전년대비 1.2%p 상승

<표-15>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천 명, %)

여성 경제활동상태 (주요 고용지표)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15세이상 여성	4,434	4,456	22	0.5	22,589	22,724	135	0.6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249 (50.7)	2,159 (48.5)	-89 (-2.3)	-4.0	10,919 (48.3)	10,194 (44.9)	-726 (-3.5)	-6.6
비경제활동인구	2,185	2,297	112	5.1	11,670	12,531	861	7.4
취업자 (고용률)	2,291 (51.7)	2,265 (50.8)	-26 (-0.8)	-1.1	11,619 (51.4)	11,325 (49.8)	-293 (-1.6)	-2.5
실업자 (실업률)	117 (5.2)	139 (6.4)	22 (1.2)	18.5	498 (4.6)	497 (4.9)	-1 (0.3)	-0.3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여성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는 감소, 비임금노동자는 증가

- 여성 임금노동자는 85.2%로 전년대비 0.1%p 하락, 비임금노동자는 14.8%로 전년대비 0.1%p 상승
- 전국대비 서울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중은 높고,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낮음. 2020년 전국의 여성 임금노동자 비중은 77.5%,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22.5%임

<표-16>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천 명, %)

종사상지위 (취업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1,954 (85.3)	1,929 (85.2)	-25 (-0.1)	-1.3	9,037 (77.8)	8,783 (77.5)	-255 (-0.2)	-2.8
비임금노동자	337 (14.7)	336 (14.8)	-1 (0.1)	-0.3	2,581 (22.2)	2,543 (22.5)	-38 (0.2)	-1.5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 여성 임금노동자의 동향

□ 서울의 여성 임금노동자는 15~34세, 대학교 졸업 비중이 높고, 중학교 이하 학력은 감소율이 큼

- 2020년 서울의 여성 임금노동자는 55~6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음
- 여성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에서 전년대비 1.1%p 하락했고, 대학교 졸업은 1.4%p, 대학원 이상은 0.3%p 상승했음
- 서울 거주지 여성 임금노동자는 1.5% 하락, 타지역으로 유출된 여성 임금노동자는 1.0% 상승, 서울로 유입된 여성 임금노동자는 7.4% 하락

<표-17> 여성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717 (36.7)	706 (36.6)	-11 (-0.1)	-1.5	2787 (30.8)	2639 (30.0)	-149 (-8.0)	-5.3
	35~44세	385 (19.7)	374 (19.4)	-11 (-0.3)	-2.8	1,902 (21.0)	1,825 (20.8)	-77 (-0.3)	-4.1
	45~54세	418 (21.4)	414 (21.5)	-4 (0.1)	-0.9	2,201 (24.4)	2,120 (24.1)	-81 (-0.2)	-3.7
	55~64세	300 (15.3)	301 (15.6)	1 (0.3)	0.5	1,461 (16.2)	1,497 (17.0)	36 (0.9)	2.4
	65세 이상	135 (6.9)	133 (6.9)	-1 (0.0)	-0.8	686 (7.6)	702 (8.0)	17 (0.4)	2.4
학력	중학교 이하	229 (11.7)	205 (10.6)	-25 (-1.1)	-10.7	1,356 (15.0)	1,251 (14.2)	-104 (-0.8)	-7.7
	고등학교	525 (26.8)	507 (26.3)	-18 (-0.6)	-3.3	2,889 (32.0)	2,779 (31.6)	-110 (-0.3)	-3.8
	대학교	1054 (53.9)	1066 (55.3)	13 (1.4)	1.2	4,333 (47.9)	4,266 (48.6)	-67 (0.6)	-1.6
	대학원 이상	147 (7.5)	151 (7.8)	4 (0.3)	3.0	460 (5.1)	487 (5.5)	27 (0.5)	5.9
소재지	거주지 임금노동자	1,775 (90.8)	1,748 (90.6)	-27 (-0.2)	-1.5	-			
	유출 임금노동자	180 (9.2)	181 (9.4)	2 (0.2)	1.0				
	유입	499	462	-37	-7.4				
	임금노동자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여성 임금노동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음식숙박업, 제조업은 감소
- 전국의 보건복지서비스업 비중은 20.5%로 전년대비 1.4%p 상승
 - 서울의 보건복지서비스업은 15.9%로 전년대비 0.7%p 상승
 - 전문기술서비스업은 2020년 서울의 여성 임금노동자 상위 6위 산업으로 진입

- 서울의 여성 임금근로자 상위 2위 산업은 도소매업, 전국은 제조업

<표-18> 여성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보건복지서비스업 (15.2)	보건복지서비스업 (15.9)	보건복지서비스업 (19.1)	보건복지서비스업 (20.5)
2	도소매업 (14.5)	도소매업 (14.5)	제조업 (12.6)	제조업 (12.4)
3	교육서비스업 (12.1)	교육서비스업 (11.3)	도소매업 (12.5)	도소매업 (12.3)
4	음식숙박업 (10.8)	음식숙박업 (9.4)	교육서비스업 (11.5)	교육서비스업 (11.0)
5	제조업 (7.7)	제조업 (7.3)	음식숙박업 (10.4)	음식숙박업 (9.2)
6	정보통신업 (6.8)	전문기술서비스 (7.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8)	공공행정서비스업 (5.1)	공공행정서비스업 (5.1)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여성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은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

- 서울의 여성 임시일용직은 34.4%로 전년대비 4.7%p 하락
- 고용보험 가입자는 71.5%로 전년대비 5.2%p 상승했고, 미가입자는 4.7%p 하락, 특수직역 가입자도 0.5%p 하락
- 2020년 서울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231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상승, 주당 근로시간은 34.9시간으로 전년대비 2.5시간 감소, 시간당 임금은 15,838원으로 2,118원 증가
- 전국대비 서울의 여성 시간당임금은 1,289원 더 많음

<표-19> 여성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91 (60.9)	1,266 (65.6)	75 (4.7)	6.3	5,586 (61.8)	5,795 (66.0)	208 (4.2)	0.0
	임시일용	764 (39.1)	664 (34.4)	-100 (-4.7)	-13.1	3,451 (38.2)	2,988 (34.0)	-463 (-4.2)	-0.1
고용 보험	가입	1,295 (66.2)	1,379 (71.5)	84 (5.2)	6.5	5,793 (64.1)	5,987 (68.2)	194 (4.1)	3.3
	미가입	580 (29.7)	483 (25.0)	-98 (-4.7)	-16.9	2,736 (30.3)	2,306 (26.3)	-431 (-4.0)	-15.7
	특수지역	79 (4.1)	68 (3.5)	-11 (-0.5)	-13.9	508 (5.6)	490 (5.6)	-18 (0.0)	-3.5
월평균임금		221.0	231.1	10.1	4.6	200.6	207.8	7.2	3.6
주당 근로시간		37.4	34.9	-2.5	-6.6	36.9	34.6	-2.4	-6.4
시간당 임금		13,719	15,838	2,118	15.4	12,503	14,549	2,046	16.4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20년 서울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4.4%, 결혼, 임신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유 증가

-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44.4%로 전년대비 0.7%p 상승
-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2.9%로 전년대비 0.7%p 상승
- 가족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9%로 전년대비 1.2%p 하락
- 전국대비 서울의 여성 경력단절 경험 비중은 적음
- 전국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사유 중 결혼이 8.1%로 가장 높음
- 가족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사유는 20.7% 감소하였음.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돌봄SOS센터(서울복지포털) 등 사회서비스 확대에 의한 효과로 판단됨

<표-20> 여성 임금노동자의 경력단절

(천 명, %)

경력단절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경험 여부	경험	854 (43.7)	868 (44.4)	14 (0.7)	1.6	5,042 (55.8)	4,999 (55.3)	-44 (-0.5)	-0.9
	미경험	1,100 (56.3)	1,061 (55.0)	-39 (-1.3)	-3.6	3,995 (44.2)	3,784 (41.9)	-211 (-2.3)	-5.3
경험 사유	결혼	86 (4.4)	89 (4.6)	3.5 (0.2)	4.1	716 (7.9)	709 (8.1)	-6.7 (0.1)	-0.9
	임신출산	102 (5.2)	104 (5.4)	2.0 (0.2)	1.9	639 (7.1)	597 (6.8)	-42.2 (-0.3)	-6.6
	육아	43 (2.2)	55 (2.9)	11.3 (0.7)	26.1	278 (3.1)	295 (3.4)	16.9 (0.3)	6.1
	초등자녀교육	25 (1.3)	24 (1.2)	0.0 (0.0)	-0.1	158 (1.7)	159 (1.8)	0.8 (0.1)	0.5
	가족돌봄	120 (6.1)	95 (4.9)	-24.8 (-1.2)	-20.7	636 (7.0)	675 (7.7)	39.8 (0.6)	6.3
	기타	479 (24.5)	501 (26.0)	22.1 (1.5)	4.6	2,616 (28.9)	2,564 (29.2)	-52.3 (0.2)	-2.0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3) 노인 노동자¹²⁾

(1) 노인의 경제활동

□ 2020년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146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5.6%

상승,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하락, 실업률은 상승

- 서울에서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5.6%p 상승
 - 서울의 노인 고용률은 27.3%로 전년대비 0.5%p 하락
 - 서울의 노인 실업률은 8.3%로 전년대비 4.4%p 상승
 - 서울은 전국보다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음.
- 특히, 2020년 노인 실업률은 서울이 전국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12)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동자

노인의 노동환경이 좋지 않음을 보여줌. 서울연구원(2015)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일하는 노인의 주된 근로 이유는 생계비를 마련(69.5%)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노인 실업률 증가로 인해 노인 빈곤이 가속화될 수 있음

<표-21> 노인의 경제활동상태

(천 명, %)

노인 경제활동상태 (주요 고용지표)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65세 이상	1,386	1,463	77	5.6	7,628	8,055	428	5.6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386 (27.8)	370 (25.3)	-16 (-2.6)	-4.2	2,368 (31.0)	2,202 (27.3)	-166 (-3.7)	-7.0
비경제활동인구	1,000	1,093	93	9.3	5,260	5,853	594	11.3
취업자 (고용률)	385 (27.8)	400 (27.3)	14 (-0.5)	3.8	2,541 (33.3)	2,687 (33.4)	146 (0.0)	5.7
실업자 (실업률)	15 (3.9)	31 (8.3)	16 (4.4)	104.0	59 (2.5)	107 (4.8)	48 (2.4)	80.9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20년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는 감소, 비임금노동자는 증가

-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는 71.3%로 2.2%p 하락, 비임금노동자는 증가
- 전국의 노인 임금노동자는 51.6%로 서울대비 규모가 적고, 전년대비 1만 5천명 감소

<표-22> 종사상 지위별 노인 취업자

(천 명, %)

종사상지위 (취업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금노동자	283 (73.5)	285 (71.3)	-2 (-2.2)	0.7	1,372 (54.0)	1,387 (51.6)	-15 (-2.4)	1.1
비임금노동자	102 (26.5)	115 (28.7)	13 (2.2)	12.7	1,169 (46.0)	1,299 (48.4)	131 (2.4)	11.2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 노인 임금노동자의 동향

<표-23> 노인 임금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65~69세	137 (48.3)	151 (53.0)	14 (4.7)	10.4	628 (45.8)	664 (47.9)	36 (2.1)	5.8
	70~74세	86 (30.2)	89 (31.2)	3 (0.9)	3.7	384 (28.0)	389 (28.0)	5 (0.1)	1.4
	75세 이상	61 (21.4)	45 (15.8)	-16 (-5.6)	-25.6	361 (26.3)	334 (24.1)	-26 (-2.2)	-7.3
성별	남	148 (52.4)	151 (53.2)	3 (0.7)	2.0	686 (50.0)	685 (49.4)	-1 (-0.6)	-0.2
	여	135 (47.6)	133 (46.8)	-1 (-0.7)	-0.8	686 (50.0)	702 (50.6)	17 (0.6)	2.4
학력	중졸 이하	142 (50.4)	133 (46.7)	-9 (-3.7)	-6.6	859 (62.6)	834 (60.1)	-24.9 (-2.5)	-2.9
	고졸	83 (29.3)	94 (32.9)	11 (3.6)	13.1	341 (24.8)	367 (26.4)	26.0 (1.6)	7.6
	전문대 이상	57 (20.3)	58 (20.3)	0 (0.0)	0.8	173 (12.6)	187 (13.5)	14.2 (0.9)	8.2
소재지	거주지 임금노동자	259 (91.5)	254 (89.2)	-5 (-2.3)	-1.9	-			
	유출 임금노동자	24 (8.5)	31 (10.8)	7 (2.3)	28.2				
	유입 임금노동자	38	44	5	14.0				
	임금노동자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는 74세 이하 증가, 남성, 고졸에서 증가

-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 중 65~69는 53.0%로 전년대비 4.7%p 상승한 반면, 75세 이상은 15.8%로 전년대비 5.6%p 하락
- 여성 노인 임금노동자는 46.8%로 전년대비 0.7%p 하락
- 중졸이하 노인 임금노동자는 46.7%로 전년대비 3.7%p 하락한 반면, 고졸 노인 임금노동자는 32.9%로 전년대비 3.6%p 상승

- 서울 거주지 임금노동자는 1.9% 하락, 타지역으로 유출된 노인 임금노동자는 28.2% 상승, 서울로 유입된 노인 임금노동자도 14.0% 상승

□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감소

-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전국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음
-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 비중이 15.2%로 전년대비 0.9%p 상승, 부동산업은 10.4%로 전년대비 0.4%p 상승
- 공공행정서비스업은 8.1%로 전년대비 3.5%p 하락
-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 상위 산업에서 제외되었고, 건설업이 포함되었음

<표-24> 노인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4)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2)	보건복지서비스업 (24.2)	보건복지서비스업 (26.1)
2	보건복지서비스업 (14.3)	보건복지서비스업 (15.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5.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3)
3	공공행정서비스업 (11.6)	부동산업 (10.4)	공공행정서비스업 (14.8)	공공행정서비스업 (11.6)
4	부동산업 (10.0)	공공행정서비스업 (8.1)	제조업 (6.4)	제조업 (6.8)
5	제조업 (6.1)	제조업 (6.6)	부동산업 (5.8)	부동산업 (5.9)
6	교육서비스업 (5.5)	도소매업 (6.3)	건설업 (5.6)	건설업 (5.8)
7	도소매업 (5.4)	건설업 (5.8)	도소매업 (4.6)	도소매업 (4.7)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노인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 월평균임금과 근로시간도 증가

- 서울의 노인 임시일용직은 68.9%로 전년대비 4.2%p 하락
- 노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5.7%로 전년대비 3.0%p 상승
- 노인의 월평균임금은 155.7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만원(8.6%) 증가했고, 주당 근로시간도 33.2시간으로 전년대비 1.2시간(3.9%) 증가했음
- 노인의 시간당임금은 12,542원으로 전년대비 1,810원 증가
- 전국대비 서울의 노인 시간당임금 증가율은 3.4% 낮음

<표-25> 노인 임금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76 (26.9)	89 (31.1)	13 (4.2)	16.6	331 (24.1)	396 (28.5)	65 (4.4)	0.2
	임시일용	207 (73.1)	196 (68.9)	-11 (-4.2)	-5.2	1,041 (75.9)	992 (71.5)	-50 (-4.4)	0.0
고용 보험	가입	64 (22.7)	73 (25.8)	9 (3.0)	14.0	267 (19.4)	323 (23.3)	57 (3.9)	21.3
	미가입	218 (77.2)	211 (74.2)	-7 (-2.9)	-3.2	1104 (80.4)	1062 (76.6)	-42 (-3.9)	-3.8
	특수지역	0 (0.1)	0 (0.0)	0 (-0.1)	-100.0	2 (0.1)	2 (0.1)	0 (0.0)	4.0
월평균임금		143.5	155.7	12.3	8.6	123.3	129.2	6.0	4.8
주당 근로시간		32.0	33.2	1.2	3.9	28.4	31.6	3.2	11.1
시간당 임금		10,732	12,542	1,810	16.9	9,939	11,961	2,022	20.3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 취약형태 구분

1) 임시일용직 노동자

□ 2020년 서울의 임시일용직은 전년대비 약 15만 명 감소, 45~54세, 여성, 중학교 이하 학력에서 감소율이 큼

<표-26>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시일용직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375 (27.8)	339 (28.4)	-36 (0.5)	-9.6	1,693 (26.9)	1,459 (26.4)	-234 (-0.4)	-13.8
	35~44세	170 (12.6)	145 (12.1)	-26 (-0.5)	-15.0	914 (14.5)	756 (13.7)	-158 (-0.8)	-17.3
	45~54세	287 (21.3)	231 (19.3)	-56 (-2.0)	-19.6	1,311 (20.8)	1,097 (19.9)	-214 (-0.9)	-16.3
	55~64세	309 (22.9)	285 (23.9)	-23 (1.0)	-7.6	1,341 (21.3)	1,214 (22.0)	-127 (0.7)	-9.5
	65세 이상	207 (15.4)	196 (16.4)	-11 (1.1)	-5.2	1,041 (16.5)	992 (18.0)	-50 (1.5)	-4.8
성별	남	584 (43.3)	532 (44.5)	-52 (1.2)	-8.9	2,849 (45.2)	2,530 (45.9)	-319 (0.6)	-11.2
	여	764 (56.7)	664 (55.5)	-100 (-1.2)	-13.1	3,451 (54.8)	2,988 (54.1)	-463 (-0.6)	-13.4
학력	중학교 이하	290 (21.5)	242 (20.2)	-48 (-1.3)	-16.7	1,548 (24.6)	1,332 (24.1)	-216 (-0.4)	-13.9
	고등학교	504 (37.4)	452 (37.8)	-51 (0.5)	-10.2	2,495 (39.6)	2,183 (39.6)	-312 (-0.0)	-12.5
	대학교	486 (36.0)	450 (37.6)	-36 (1.6)	-7.4	2,076 (32.9)	1,841 (33.4)	-235 (0.4)	-11.3
	대학원 이상	68 (5.1)	52 (4.3)	-16 (-0.7)	-23.8	182 (2.9)	162 (2.9)	-20 (0.0)	-11.2
총계		1,348 (100.0)	1,196 (100.0)	-152 (-0.0)	-11.3	6,300 (100.0)	5,518 (100.0)	-783 (-0.0)	-12.4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임시일용직은 120만 명으로 전년대비 15만 명(11.3%)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정규직에서 실직자 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 45~54세 임시일용직은 19.3%로 전년대비 5만 6천명 감소
- 남성 임시일용직은 전년대비 5만명 감소, 여성은 10만명 감소
- 임시일용직 학력 중 대학교 졸업은 37.6%로 전년대비 1.6%p 상승, 중학교 이하는 20.2%로 전년대비 1.3%p 하락
- 전국에서는 65세 이상 임시일용직이 전년대비 1.5%p 상승, 대학교 졸업 임시일용직은 33.4%로 0.4%p 상승

□ 서울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도소매업에서 하락한 반면, 건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제조업에서 상승

<표-27>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음식숙박업 (15.8)	음식숙박업 (13.3)	음식숙박업 (15.1)	건설업 (13.9)
2	도소매업 (12.6)	건설업 (12.8)	건설업 (13.4)	음식숙박업 (13.5)
3	건설업 (12.0)	도소매업 (12.2)	도소매업 (11.8)	도소매업 (11.2)
4	교육서비스업 (10.8)	교육서비스업 (9.5)	보건복지서비스업 (9.1)	보건복지서비스업 (10.4)
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3)	교육서비스업 (8.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9)
6	보건복지서비스업 (7.0)	보건복지서비스업 (7.5)	제조업 (7.7)	제조업 (7.5)
7	제조업 (6.7)	제조업 (6.8)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7.4)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은 전년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건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제조업에서 상승,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하락
- 전국은 전년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건설업, 음식숙박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상승, 도소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에서 하락

□ 서울의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 고용보험 미가입 및 특수지역 노동자는 감소

- 서울의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30.7%로 전년대비 3.6%p 상승, 전국의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28.5%로 전년대비 3.2%p 상승
- 서울의 임시일용직 월평균임금은 160.5만원으로 전년대비 4.7만 원 (3.0%) 증가, 주당 근로시간은 32.4시간으로 전년대비 2.4시간 감소
- 시간당 임금은 12,594원으로 전년대비 1,568원 증가

<표-28>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시일용직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고용 보험	가입	365 (27.1)	367 (30.7)	2 (3.6)	0.4	1,591 (25.3)	1,573 (28.5)	-19 (3.2)	-1.2
	미가입	980 (72.7)	829 (69.3)	-152 (-3.5)	-15.5	4,703 (74.7)	3,939 (71.4)	-764 (-3.3)	-16.3
	특수지역	2 (0.2)	0 (0.0)	-2 (-0.1)	-81.4	6 (0.1)	6 (0.1)	1 (0.0)	10.5
월평균임금		155.8	160.5	4.7	3.0	150.9	151.2	0.3	0.2
주당 근로시간		34.9	32.4	-2.4	-7.0	33.5	31.9	-1.6	-4.8
시간당 임금		11,025	12,594	1,568	14.2	10,775	12,099	1,323	12.3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 기간제 근로자¹³⁾

□ 2020년 서울의 기간제 근로자는 10.7% 증가, 15~34세, 45~54세, 남성, 대학교 졸업 학력에서 증가

<표-29> 기간제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기간제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222 (29.0)	264 (31.1)	42 (2.1)	18.8	1,030 (26.4)	1,024 (26.3)	-6 (-0.1)	-0.6
	35~44세	115 (15.0)	122 (14.4)	7 (-0.6)	6.3	608 (15.6)	611 (15.7)	3 (0.1)	0.5
	45~54세	141 (18.4)	173 (20.4)	32 (2.0)	22.8	714 (18.3)	741 (19.0)	27 (0.8)	3.8
	55~64세	161 (21.0)	170 (20.0)	8 (-1.0)	5.3	786 (20.1)	776 (19.9)	-10 (-0.2)	-1.2
	65세 이상	128 (16.7)	120 (14.2)	-7 (-2.5)	-5.7	767 (19.7)	739 (19.0)	-29 (-0.7)	-3.8
성별	남	347 (45.4)	401 (47.3)	54 (2.0)	15.5	1,836 (47.0)	1,837 (47.2)	2 (0.2)	0.1
	여	419 (54.6)	447 (52.7)	28 (-2.0)	6.7	2,069 (53.0)	2,052 (52.8)	-17 (-0.2)	-0.8
학력	중학교 이하	142 (18.6)	117 (13.8)	-25 (-4.8)	-17.8	942 (24.1)	836 (21.5)	-106 (-2.6)	-11.3
	고등학교	226 (29.5)	254 (30.0)	28 (0.5)	12.6	1,309 (33.5)	1,290 (33.2)	-19 (-0.4)	-1.4
	대학교	335 (43.7)	402 (47.4)	67 (3.7)	20.0	1,462 (37.4)	1,536 (39.5)	75 (2.1)	5.1
	대학원 이상	63 (8.2)	75 (8.9)	12 (0.6)	19.0	192 (4.9)	227 (5.8)	36 (0.9)	18.5
총계		766 (100.0)	848 (100.0)	82 (0.0)	10.7	3,905 (100.0)	3,890 (100.0)	-15 (0.0)	-0.4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13)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한 노동자를 의미함

- 서울의 기간제 근로자 15~34세는 31.1%로 전년대비 2.1%p 상승하였고, 45~54세는 20.4%로 전년대비 2.0%p 상승한 반면, 6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대비 2.5%p 하락
- 기간제 근로자 남성은 47.3%, 여성은 52.7%로 전년대비 남성이 2.0%p 상승. 기간제 근로자 전년대비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10만 7천명 증가, 중학교 이하 2만 5천명 감소

□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에서 상승

- 서울의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12.6%로 전년대비 1.2%p 상승,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12.1%를 차지
- 서울의 교육서비스업 기간제 근로자는 10.6%, 도소매업은 10.2%를 차지
- 공공행정서비스업은 2020년 서울 기간제 근로자 상위 산업에서 제외되었고, 전문서비스업이 포함되었음

<표-30>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교육서비스업 (12.7)	보건복지서비스업 (12.6)	보건복지서비스업 (15.9)	보건복지서비스업 (18.0)
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9)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3)
3	보건복지서비스 (11.4)	교육서비스업 (10.6)	제조업 (10.4)	제조업 (10.7)
4	도소매업 (9.8)	도소매업 (10.2)	교육서비스업 (9.6)	교육서비스업 (8.5)
5	음식숙박업 (8.9)	음식숙박업 (8.5)	건설업 (9.3)	도소매업 (8.2)
6	건설업 (8.5)	건설업 (7.8)	공공행정서비스업 (8.9)	공공행정서비스업 (7.9)
7	공공행정서비스업 (6.9)	전문서비스업 (6.0)	도소매업 (8.3)	건설업 (7.6)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수는 감소, 1~2년과 2년 초과 계약근로자 수는 증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율은 하락
- 계약기간 1년 미만 감소, 1년 이상 증가는 고용안정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64.3%로 전년대비 14만 4천명 증가. 기간제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20.3만원으로 전년대비 28.0% 상승
 - 주당 근로시간은 34.4시간, 시간당 임금은 15,697원으로 전년대비 2,897원 증가

<표-3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기간제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계약 기간	1년 미만	507 (66.1)	462 (54.4)	-45 (-11.7)	-8.9	2,472 (63.3)	2,141 (55.0)	-331 (-8.3)	-13.4
	1년~2년	216 (28.2)	328 (38.6)	111 (10.4)	51.5	1,258 (32.2)	1,535 (39.5)	277 (7.2)	22.0
	2년 초과	43 (5.7)	59 (7.0)	16 (1.3)	36.2	175 (4.5)	214 (5.5)	39 (1.0)	22.5
고용 보험	가입	401 (52.4)	545 (64.3)	144 (11.9)	35.8	2,102 (53.8)	2,411 (62.0)	308 (8.1)	14.7
	미가입	360 (47.0)	299 (35.3)	-61 (-11.7)	-17.0	1,779 (45.6)	1,456 (37.4)	-323 (-8.1)	-18.2
	특수직역	5 (0.6)	4 (0.4)	-1 (-0.1)	-16.7	24 (0.6)	24 (0.6)	0 (0.0)	0.8
월평균임금		192.2	220.3	28.0	14.6	179.6	192.9	13.4	7.4
주당 근로시간		35.5	34.4	-1.1	-3.2	34.7	34.3	-0.4	-1.0
시간당 임금		12,800	15,697	2,897	22.6	12,034	14,204	2,170	18.0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3) 단시간 노동자¹⁴⁾

□ 2020년 서울의 단시간 노동자는 약 166만 명으로 작년대비 약 92만 명 증가, 35~44세, 남성, 대학교 학력에서 증가율이 큼

<표-32> 단시간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단시간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216 (29.3)	532 (32.1)	316 (2.9)	146.3	962 (26.3)	2,196 (28.1)	1,234 (1.8)	128.3
	35~44세	102 (13.9)	343 (20.7)	241 (6.9)	235.3	528 (14.4)	1,710 (21.9)	1,182 (7.5)	224.1
	45~54세	136 (18.5)	363 (21.9)	227 (3.4)	166.2	660 (18.0)	1,871 (23.9)	1,211 (5.9)	183.4
	55~64세	144 (19.5)	283 (17.1)	140 (-2.3)	97.4	718 (19.6)	1,429 (18.3)	711 (-1.3)	99.0
	65세 이상	139 (18.9)	133 (8.1)	-6 (-10.8)	-4.1	795 (21.7)	617 (7.9)	-178 (-13.8)	-22.4
성별	남	223 (30.3)	772 (46.7)	549 (16.4)	245.6	1,201 (32.8)	3,729 (47.7)	2,528 (14.9)	210.4
	여	514 (69.7)	882 (53.3)	368 (-16.4)	71.7	2,461 (67.2)	4,092 (52.3)	1,631 (-14.9)	66.3
학력	중학교 이하	155 (21.0)	145 (8.8)	-10 (-12.2)	-6.4	968 (26.4)	862 (11.0)	-107 (-15.4)	-11.0
	고등학교	209 (28.4)	374 (22.6)	165 (-5.8)	78.8	1,141 (31.2)	2,190 (28.0)	1,049 (-3.2)	91.9
	대학교	312 (42.4)	955 (57.7)	642 (15.3)	205.6	1,377 (37.6)	4,096 (52.4)	2,719 (14.8)	197.4
	대학원 이상	61 (8.2)	180 (10.9)	120 (2.7)	197.2	176 (4.8)	674 (8.6)	499 (3.8)	283.5
총계		737 (100.0)	1,655 (100.0)	917 (0.0)	124.4	3,662 (100.0)	7,822 (100.0)	4,159 (0.0)	113.6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14) 단시간노동자는 법정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함. 본 연구는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함

- 서울의 단시간 노동자 중 35~44세 비율은 20.7%로 전년대비 6.9%p 상승, 65세 이상 비율은 8.1%로 전년대비 10.8%p 하락
- 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53.3%로 전년대비 16.4%p 하락
- 단시간 노동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전년대비 15.3%p 상승, 중학교 이하 학력은 12.2%p 하락
- 전국대비 서울의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이 10.8%p 상승

□ 서울에서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정보통신업에서 상승,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하락

<표-33> 단시간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음식숙박업 (16.1)	교육서비스업 (14.1)	보건복지서비스업 (17.2)	제조업 (14.1)
2	교육서비스업 (15.4)	도소매업 (11.9)	음식숙박업 (15.5)	교육서비스업 (13.8)
3	보건복지서비스업 (13.5)	전문서비스업 (8.4)	교육서비스업 (12.0)	보건복지서비스업 (10.3)
4	도소매업 (11.5)	보건복지서비스업 (8.2)	도소매업 (11.2)	도소매업 (9.4)
5	공공행정서비스업 (6.4)	제조업 (7.8)	공공행정서비스업 (7.4)	공공행정서비스업 (8.1)
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정보통신업 (7.6)	건설업 (7.3)	건설업 (7.1)
7	건설업 (5.2)	음식숙박업 (6.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0)	음식숙박업 (6.9)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3%p 하락하였으나, 2020년 서울에서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임

- 도소매업 단시간 노동자는 11.9%로 전년대비 0.4%p 상승
- 전문서비스업은 2020년 서울의 단시간 노동자 비율 상위 산업에 포함되었고, 공공행정서비스업은 제외되었음

□ 2020년 서울의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감소,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증가, 시간당 임금은 55.2% 상승

<표-34>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단시간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172 (23.4)	132 (8.0)	-41 (-15.4)	-23.6	907 (24.8)	615 (7.9)	-292 (-16.9)	-32.2
	15~24시간	261 (35.4)	309 (18.7)	48 (-16.7)	18.4	1,259 (34.4)	1,438 (18.4)	180 (-16.0)	14.3
	25~35시간	304 (41.2)	1,214 (73.4)	910 (32.1)	299.3	1,497 (40.9)	5,768 (73.7)	4,271 (32.9)	285.3
고용 보험	가입	232 (31.5)	1,083 (65.5)	851 (34.0)	366.3	1,081 (29.5)	4,773 (61.0)	3,692 (31.5)	341.6
	미가입	497 (67.4)	477 (28.8)	-20 (-38.6)	-4.0	2,551 (69.7)	2,303 (29.4)	-248 (-40.2)	-9.7
	특수직역	8 (1.1)	94 (5.7)	86 (4.6)	1,057.2	30 (0.8)	745 (9.5)	715 (8.7)	2,390.7
월평균임금		126.7	266.7	139.9	110.4	116.0	249.8	133.8	115.4
주당 근로시간		21.3	27.5	6.2	29.0	21.3	27.6	6.3	29.8
시간당 임금		14,077	21,846	7,769	55.2	12,710	20,309	7,599	59.8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15시간미만 노동자는 13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1천명 감소, 15~24시간 노동자는 전년대비 4만 8천명 증가
- 15~35시간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규제, 매출 감소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36시간 이상 노동자들이 25~35시간(121만명)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라 예상됨

-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전년대비 85만 1천명 증가, 특수직역 노동자는 8만 6천명 증가
- 단시간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67만원, 주당 근로시간은 27.5시간, 시간당 임금은 21,846원으로 전년대비 7,769원(55.2%) 증가

4) 저임금 노동자¹⁵⁾

□ 2020년 서울의 저임금 노동자는 77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2.0% 감소, 65세 이상, 여성, 중학교 이하에서 감소

- 서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의 원인인 임금격차가 더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의 저임금 노동자 중 65세 이상은 17.6%로 전년대비 2.2%p 하락
- 저임금 노동자는 여성 비율이 61.6%로 전년대비 0.9%p 하락
- 학력은 중학교 이하에서 전년대비 3.2%p 하락, 대학교 졸업은 전년대비 3.1%p 상승
- 반면, 전국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전년대비 45만 7천명 증가

15) 저임금 노동자는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노동자로 정의. 서울의 중위임금은 166.7만원 전국은 146.7만원

<표-35> 저임금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저임금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225 (28.6)	233 (30.3)	8 (1.6)	3.6	660 (25.7)	902 (29.9)	243 (4.1)	36.8
	35~44세	81 (10.3)	83 (10.8)	2 (0.4)	2.2	266 (10.4)	364 (12.0)	98 (1.7)	37.0
	45~54세	149 (19.0)	132 (17.1)	-18 (-1.9)	-11.8	423 (16.5)	559 (18.5)	136 (2.0)	32.2
	55~64세	176 (22.3)	188 (24.3)	12 (2.0)	6.7	527 (20.6)	694 (23.0)	167 (2.4)	31.7
	65세 이상	156 (19.8)	136 (17.6)	-20 (-2.2)	-12.9	690 (26.9)	502 (16.6)	-188 (-10.3)	-27.2
성별	남	295 (37.5)	296 (38.4)	1 (0.9)	0.5	917 (35.7)	1,141 (37.8)	225 (2.0)	24.5
	여	492 (62.5)	475 (61.6)	-17 (-0.9)	-3.5	1,649 (64.3)	1,881 (62.2)	232 (-2.0)	14.1
학력	중학교 이하	195 (24.8)	167 (21.6)	-29 (-3.2)	-14.7	867 (33.8)	714 (23.6)	-152 (-10.1)	-17.6
	고등학교	308 (39.1)	304 (39.4)	-4 (0.3)	-1.3	950 (37.0)	1,227 (40.6)	277 (3.6)	29.1
	대학교	262 (33.3)	281 (36.4)	19 (3.1)	7.2	691 (26.9)	1,012 (33.5)	321 (6.6)	46.4
	대학원 이상	22 (2.8)	20 (2.6)	-2 (-0.2)	-9.0	57 (2.2)	68 (2.2)	11 (0.0)	18.6
총계		787 (100.0)	771 (100.0)	-16 (0.0)	-2.0	2,566 (100.0)	3,022 (100.0)	457 (0.0)	17.8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저임금 노동자는 도소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상승

- 저임금 노동자는 도소매업에서 16.7%로 전년대비 2.1%p 상승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0.9%로 전년대비 0.3%p 상승
- 보건복지서비스업은 9.7%로 전년대비 0.8%p 상승

<표-36> 저임금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음식숙박업 (19.3)	도소매업 (16.7)	음식숙박업 (19.1)	음식숙박업 (18.3)
2	도소매업 (14.6)	음식숙박업 (16.7)	보건복지서비스업 (14.3)	도소매업 (15.7)
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9)	도소매업 (13.1)	보건복지서비스업 (11.6)
4	보건복지서비스업 (8.9)	보건복지서비스업 (9.7)	제조업 (8.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6)
5	제조업 (8.8)	제조업 (8.8)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9)	제조업 (9.5)
6	개인서비스업 (6.2)	개인서비스업 (5.5)	공공행정서비스업 (7.6)	개인서비스업 (5.9)
7	교육서비스업 (6.0)	건설업 (4.9)	개인서비스업 (6.8)	운수창고업 (4.6)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저임금 노동자는 37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8.3%p 상승, 저임금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만원

- 저임금 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대비 5만 7천명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37.2만원으로 전년대비 13만원(10.5%) 증가, 시간당 임금은 8,059원으로 전년대비 14.6% 상승
- 저임금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0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3.7%) 감소

<표-37>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저임금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고용 보험	가입	315 (40.0)	372 (48.3)	57 (8.3)	18.2	748 (29.1)	1,346 (44.5)	598 (15.4)	80.0
	미가입	469 (59.6)	398 (51.6)	-72 (-8.0)	-15.2	1,814 (70.7)	1,668 (55.2)	-146 (-15.5)	-8.1
	특수직역	3 (0.4)	1 (0.2)	-2 (-0.2)	-57.5	4 (0.2)	9 (0.3)	5 (0.1)	114.8
월평균임금		124.2	137.2	13.0	10.5	98.4	122.9	24.5	24.9
주당 근로시간		40.5	39.0	-1.5	-3.7	36.0	37.6	1.5	4.3
시간당 임금		7,033	8,059	1,026	14.6	6,328	7,499	1,172	18.5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5) 소규모 자영업¹⁶⁾

□ 2019년 서울지역 사업장 중 5인 미만 자영업은 증가, 1인 자영업은 감소,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자영업은 감소

- 서울의 5인 미만 자영업은 65만 7천개로 전년대비 3.0% 상승
- 서울의 1인 자영업은 60만 2천개로 전년대비 8천명(1.3%) 감소
-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자영업은 전년대비 2천개 감소한 26만 8천개
- 전국에서는 5인 미만, 1인,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

16) 소규모 자영업은 종사자 규모와 연매출을 고려하여 3가지로 정의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소규모 자영업으로 보고, 이에 더하여 1인 자영업,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살펴봄.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 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현재시점에서 제공된 최신자료(2018년, 2019년)를 사용하였음

<표-38> 소규모 자영업의 규모

(천 개, %)

소규모 자영업 (전체 사업장 중 비중)	서울				전국			
	2018	2019	증감	증감률	2018	2019	증감	증감률
5인 미만 자영업	638 (77.4)	657 (79.7)	19 (2.3)	3.0	3,341 (81.4)	3,494 (83.7)	153 (2.2)	4.6
1인 자영업	610 (74.1)	602 (73.1)	-8 (-1.0)	-1.3	3,140 (76.5)	3,166 (75.8)	26 (-0.7)	0.8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자영업	270 (42.3)	268 (40.8)	-2 (-1.5)	-0.8	1,476 (44.2)	1,519 (43.5)	43 (-0.7)	2.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19년 서울의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수는 감소, 전국은 증가

- 서울의 5인 미만 자영업 종사자는 61만 명으로 전년대비 6천명(0.9%) 감소
- 1인 자영업자는 60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8천명(1.3%) 감소
- 서울의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자영업 종사자는 26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6천명(0.6%) 감소
-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

<표-39>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천 명, %)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전체 종사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8	2019	증감	증감률	2018	2019	증감	증감률
5인 미만 자영업자 종사자	616 (12.8)	610 (12.6)	-6 (-0.2)	-0.9	3,165 (15.9)	3,202 (15.7)	36 (-0.2)	1.1
1인 자영업자 종사자	610 (12.6)	602 (12.4)	-8 (-0.2)	-1.3	3,140 (15.8)	3,166 (15.5)	26 (-0.2)	0.8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종사자	268 (42.7)	263 (42.1)	-6 (-0.6)	-2.2	1,471 (45.1)	1,497 (45.4)	27 (0.3)	1.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은 건설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표-40> 산업별 소규모 자영업 규모

(천 개, %)

5인미만 사업장 (소규모자영업 중 비중)	서울				전국			
	2018	2019	증감	증감률	2018	2019	증감	증감률
제조업	53 (8.3)	52 (8.0)	-1 (-0.3)	-0.9	376 (11.3)	389 (11.1)	13 (-0.1)	3.3
건설업	12 (1.8)	15 (2.3)	3 (0.5)	28.9	78 (2.3)	109 (3.1)	32 (0.8)	40.8
도소매	171 (26.9)	172 (26.1)	1 (-0.7)	0.3	858 (25.7)	871 (24.9)	14 (-0.7)	1.6
운수창고업	90 (14.1)	90 (13.6)	0 (-0.4)	-0.1	371 (11.1)	383 (11.0)	12 (-0.1)	3.2
음식숙박업	121 (19.0)	123 (18.7)	2 (-0.3)	1.4	737 (22.1)	756 (21.6)	19 (-0.4)	2.6
정보통신업	8 (1.2)	9 (1.4)	1 (0.2)	17.4	16 (0.5)	19 (0.5)	3 (0.1)	20.0
금융보험업	2 (0.3)	3 (0.5)	1 (0.1)	51.0	7 (0.2)	11 (0.3)	4 (0.1)	59.2
부동산업	29 (4.6)	32 (4.9)	3 (0.3)	10.1	111 (3.3)	121 (3.5)	10 (0.1)	8.7
전문서비스업	21 (3.4)	24 (3.6)	3 (0.3)	11.2	67 (2.0)	74 (2.1)	7 (0.1)	11.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 (1.1)	10 (1.5)	3 (0.4)	42.2	38 (1.1)	49 (1.4)	11 (0.3)	30.2
교육서비스업	27 (4.3)	29 (4.4)	2 (0.1)	5.3	152 (4.5)	162 (4.6)	10 (0.1)	6.6
보건복지서비스업	23 (3.7)	23 (3.6)	0 (-0.1)	0.0	111 (3.3)	112 (3.2)	0 (-0.1)	0.4
예술스포츠서비스업	20 (3.2)	21 (3.1)	1 (0.0)	2.0	109 (3.3)	111 (3.2)	2 (-0.1)	2.0
개인서비스업	53 (8.3)	54 (8.3)	1 (0.0)	2.7	306 (9.2)	321 (9.2)	15 (0.0)	4.9
5인미만 자영업자	638 (100.0)	657 (100.0)	19 (-)	3.0	3,341 (100.0)	3,494 (100.0)	153 (-)	4.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건설업에서 1만 5천개로 전년대비 약 3천개(28.9%) 증가
- 부동산업은 3만 2천개로 전년대비 약 3천개(10.1%) 증가
- 전문서비스업은 2만 4천개로 전년대비 약 3천개(11.2%) 증가
- 제조업은 5만 2천개로 전년대비 약 1천개(0.9%) 감소

□ 서울은 전년대비 제조업, 도소매, 운수창고업, 개인서비스업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수 감소

- 서울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는 제조업 2천명, 도소매 5천명 감소,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증가
- 도소매업은 16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3.2% 하락
- 제조업은 4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4.6% 하락
- 음식숙박업은 12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상승
- 금융보험업은 약 2천명으로 전년대비 5.9% 상승

<표-41> 산업별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천 명,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소규모자영업 중 비중)	서울				전국			
	2018	2019	증감	증감률	2018	2019	증감	증감률
제조업	44 (7.1)	42 (6.8)	-2 (-0.3)	-4.6	275 (8.7)	273 (8.5)	-2 (-0.2)	-0.6
건설업	11 (1.8)	11 (1.8)	0 (0.0)	0.3	69 (2.2)	72 (2.3)	3 (0.1)	3.9
도소매	168 (27.3)	163 (26.7)	-5 (-0.6)	-3.2	840 (26.5)	833 (26.0)	-7 (-0.5)	-0.8
운수창고업	89 (14.5)	89 (14.5)	-1 (0.0)	-0.8	367 (11.6)	375 (11.7)	8 (0.1)	2.2
음식숙박업	120 (19.5)	122 (20.0)	2 (0.4)	1.2	734 (23.2)	753 (23.5)	19 (0.3)	2.6
정보통신업	6 (1.0)	6 (1.0)	0 (0.0)	-4.1	11 (0.3)	11 (0.3)	0 (0.0)	2.1
금융보험업	1 (0.2)	2 (0.3)	1 (0.1)	5.9	4 (0.1)	5 (0.1)	1 (0.0)	4.1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소규모자영업 중 비중)	서울				전국			
	2018	2019	증감	증감률	2018	2019	증감	증감률
부동산업	29 (4.7)	30 (4.9)	1 (0.1)	1.8	110 (3.5)	110 (3.4)	0 (0.0)	0.1
전문서비스업	20 (3.2)	20 (3.2)	0 (0.0)	0.8	58 (1.8)	60 (1.9)	2 (0.1)	4.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0.9)	6 (1.0)	0 (0.1)	1.4	30 (0.9)	32 (1.0)	2 (0.1)	6.6
교육서비스업	27 (4.4)	27 (4.5)	0 (0.1)	0.4	150 (4.7)	153 (4.8)	3 (0.0)	1.8
보건복지서비스업	23 (3.7)	23 (3.8)	0 (0.0)	0.2	108 (3.4)	108 (3.4)	0 (-0.1)	-0.4
예술스포츠서비스업	20 (3.2)	20 (3.3)	1 (0.1)	1.3	106 (3.3)	107 (3.4)	1 (0.0)	1.3
개인서비스업	52 (8.4)	52 (8.5)	0 (0.1)	-0.1	300 (9.5)	305 (9.5)	6 (0.1)	2.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3. 주요 이슈 동향

1) 최저임금미만 노동자¹⁷⁾

□ 2020년 서울의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37.3% 감소, 45세~54세, 여성, 대학원 이상 이하에서 감소

- 서울의 45~54세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6만명, 35~44세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3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45.0%, 40.8% 감소
- 여성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23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 3천명 감소, 남성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14만명으로 전년대비 7만 9천명 감소
- 고등학교 졸업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14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8만 5천명 감소

17)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월평균 급여와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해당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표-42>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164 (27.4)	105 (28.1)	-58 (0.7)	-35.7	823 (27.0)	568 (29.5)	-254 (2.5)	-30.9
	35~44세	54 (9.0)	32 (8.5)	-22 (-0.5)	-40.8	335 (11.0)	213 (11.1)	-122 (0.1)	-36.5
	45~54세	110 (18.4)	60 (16.1)	-49 (-2.3)	-45.0	524 (17.2)	331 (17.2)	-192 (0.0)	-36.7
	55~64세	137 (23.0)	91 (24.2)	-47 (1.2)	-34.1	627 (20.6)	434 (22.6)	-193 (2.0)	-30.7
	65세 이상	133 (22.3)	87 (23.2)	-46 (0.9)	-34.8	738 (24.2)	378 (19.7)	-360 (-4.6)	-48.8
성별	남	219 (36.7)	140 (37.3)	-79 (0.6)	-36.2	1,089 (35.7)	742 (38.5)	-347 (2.8)	-31.9
	여	378 (63.3)	235 (62.7)	-143 (-0.6)	-37.9	1,957 (64.3)	1,183 (61.5)	-774 (-2.8)	-39.6
학력	중학교 이하	165 (27.6)	100 (26.6)	-65 (-1.0)	-39.6	963 (31.6)	496 (25.8)	-467 (-5.8)	-48.5
	고등학교	228 (38.2)	143 (38.2)	-85 (0.0)	-37.2	1,157 (38.0)	764 (39.7)	-394 (1.7)	-34.0
	대학교	187 (31.3)	124 (33.2)	-63 (1.9)	-33.5	859 (28.2)	621 (32.3)	-238 (4.1)	-27.7
	대학원 이상	18 (3.0)	8 (2.0)	-10 (-0.9)	-56.6	67 (2.2)	44 (2.3)	-23 (0.1)	-34.6
총계	598 (100.0)	375 (100.0)	-223 (0.0)	-37.3	3,046 (100.0)	1,925 (100.0)	-1,121 (0.0)	-36.8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는 도소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부동산업에서 상승
-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비율이 16.5%로 가장 높은 산업임
 - 도소매업은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비율이 16.4%로 전년대비 3.5%p 상승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2.1%로 전년대비 1.3%p 상승
 - 제조업은 9.1%로 전년대비 0.7%p 상승

- 보건복지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비중 감소
- 부동산업은 2020년 서울의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상위 산업에 포함됨

<표-43>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9	2020	2019	2020
1	음식숙박업 (20.2)	음식숙박업 (16.5)	음식숙박업 (19.1)	음식숙박업 (19.5)
2	도소매업 (13.9)	도소매업 (16.4)	보건복지서비스업 (13.9)	도소매업 (15.7)
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8)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1)	도소매업 (13.8)	보건복지서비스업 (10.5)
4	보건복지서비스업 (8.8)	제조업 (9.1)	제조업 (8.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3)
5	제조업 (8.4)	보건복지서비스업 (8.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0)	제조업 (8.2)
6	개인서비스업 (6.8)	개인서비스업 (5.4)	공공행정서비스업 (6.9)	개인서비스업 (6.4)
7	교육서비스업 (6.0)	부동산업 (5.0)	개인서비스업 (6.6)	운수창고업 (4.8)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에서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35.7%로 13만 4천명,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8.6시간, 시간당 임금은 6,655원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13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 5천명 감소하였음. 이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수의 감소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수가 감소한 것은 노동자의 임금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감소와 주당 근로시간 감소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임

- 시간당 임금은 6,655원으로 전년대비 319원(2.1%) 증가

<표-44>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고용 보험	가입	209 (34.9)	134 (35.7)	-75 (0.8)	-35.9	1,008 (33.1)	703 (36.5)	-304 (3.5)	-30.2
	미가입	387 (64.7)	241 (64.2)	-146 (-0.5)	-37.8	2,033 (66.7)	1,217 (63.2)	-816 (-3.5)	-40.1
	특수지역	2 (0.3)	0 (0.1)	-2 (-0.3)	-85.2	5 (0.2)	5 (0.2)	-1 (0.1)	-17.7
월평균임금	113.1	112.1	-1.0	-0.9	105.5	109.0	3.5	3.4	
주당 근로시간	39.9	38.6	-1.4	-3.4	36.7	37.4	0.7	1.9	
시간당 임금	6,516	6,655	139	2.1	6,613	6,654	42	0.6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20년 서울의 최저임금 미달총액은 7억 2천 5백만 원

<표-45>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

(백만 원, 원)

미달액 규모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최저임금 미달총액	1,096	725	-371	-33.8	5,291	3,725	-1,566	-29.6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	1,834	1,935	101	5.5	1,737	1,936	199	11.5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20년 서울의 최저임금 미달총액 7억 2천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천 1백만 원(33.8%) 감소
-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은 1,935원으로 전년대비 101원(5.5%) 증가

- 전국의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은 1,936원으로 전년대비 199원(11.5%) 증가

2) 그냥 쉬었음

□ 2020년 서울의 주된 활동상태가 ‘그냥 쉬었음’이 53만 4천명

<표-46> ‘그냥 쉬었음’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그냥 쉬었음		서울				전국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103 (26.1)	121 (22.7)	18 (-3.5)	17.2	516 (21.5)	662 (21.8)	146 (0.3)	28.3
	35~44세	62 (15.7)	80 (15.0)	18 (-0.7)	29.5	243 (10.1)	326 (10.7)	83 (0.6)	34.2
	45~54세	67 (17.0)	82 (15.3)	15 (-1.6)	22.0	338 (14.1)	419 (13.8)	81 (-0.3)	23.8
	55~64세	145 (36.7)	152 (28.5)	7 (-8.1)	5.1	709 (29.5)	796 (26.2)	87 (-3.3)	12.3
	65세 이상	18 (4.5)	98 (18.4)	81 (13.9)	451.4	598 (24.9)	833 (27.4)	236 (2.6)	39.5
성별	남	274 (69.4)	370 (69.3)	96 (-0.1)	35.0	1,845 (76.8)	2,305 (75.9)	459 (-0.9)	24.9
	여	121 (30.6)	164 (30.7)	43 (0.1)	35.5	558 (23.2)	732 (24.1)	174 (0.9)	31.1
학력	중학교 이하	46 (11.7)	84 (15.7)	37 (4.0)	81.3	576 (24.0)	713 (23.5)	137 (-0.5)	23.7
	고등학교	148 (37.5)	183 (34.4)	35 (-3.2)	23.7	897 (37.3)	1,118 (36.8)	221 (-0.5)	24.7
	대학교	179 (45.3)	236 (44.1)	57 (-1.1)	31.7	846 (35.2)	1,095 (36.1)	249 (0.9)	29.5
	대학원 이상	22 (5.5)	31 (5.8)	9 (0.3)	43.3	85 (3.5)	111 (3.6)	26 (0.1)	30.3
총계		395 (100.0)	534 (100.0)	139 (0.0)	35.2	2,403 (100.0)	3,036 (100.0)	633 (0.0)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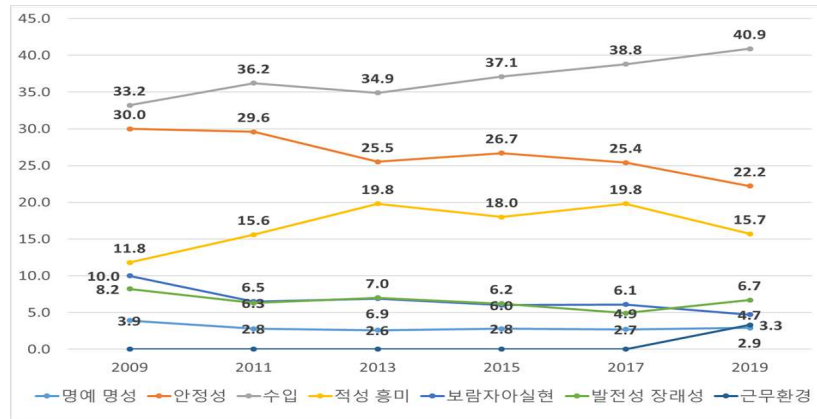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20년 서울에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그냥 쉬었음'은 53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3만 9천명(35.2%) 증가.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의욕마저 잃어버린 니트(NEET)족 증가에 대한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냥 쉬었음'은 55~64세가 15만 2천명, 15~34세가 12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7천명, 1만 8천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9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8만 1천명 증가
- 성별은 남성이 9만 6천명, 여성이 4만 3천명 증가. 학력은 대학교 졸업에서 전년대비 5만 7천명 증가
- 전국에서 '그냥 쉬었음'은 303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63만 3천명(26.3%) 증가
- 2020년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나타나는 시기로, 전 계층에서 나타남. 서울은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에서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노인 계층과 저학력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는 65세 인구 규모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인 흐름과 함께 코로나 충격이 이들에게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3) 노동인식

- **직업선택에서 수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반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비중은 점점 약해지고 있음**
- (수입) 수입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비중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09년 33.2%이었던 것이 2019년 40.9%로 상승함
- (고용안정성) 일의 안정성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비중은 점점 하락하고 있음. 2009년 30%에서 2019년 22.2%까지 하락함

[그림-47] 직업선택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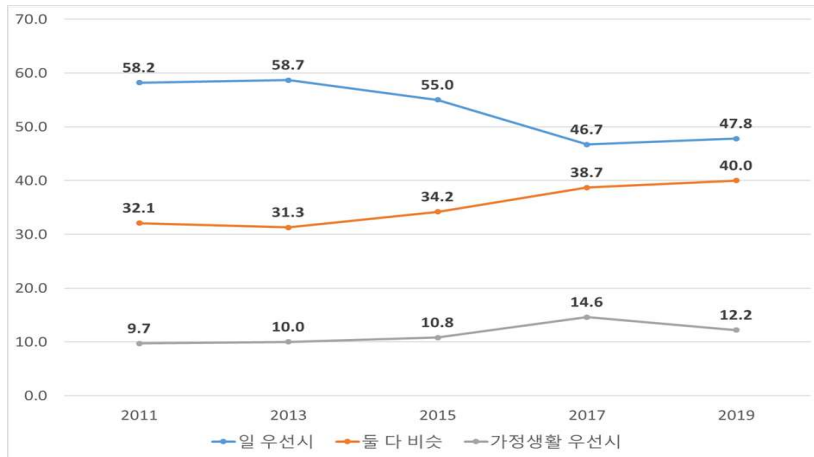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일과 가정 중 무엇을 우선시 하는지 인식을 살펴보면, 일을 우선시 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상승함. 성별로 보면, 일을 중시하는 남성이 눈에 띄게 하락함
 - (전체) 서울시민들은 일을 중시하는 비중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인식이나 가정을 우선시 한다는 비중이 상승함. 일을 우선한다는 비중은 2011년 58.2%에서 47.8%로 하락함. 반면,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것이 30%대에서 40%까지 상승하였고,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비중도 10% 정도에서 12.2%로 상승함
 - (남성) 남성의 인식을 보면, 일을 중시하는 남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일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65% 정도에서 최근 52.4%까지 하락함. 반면,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가정을 우선시 하는 비중은 상승함
 - (여성) 여성은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함. 오히려 가정 우선성이 약해지고 일과 가정을 둘 다 비슷하게 무게를 두는 경향이 커짐
 - (일·가정양립문화에 대한 만족도) 일·가정양립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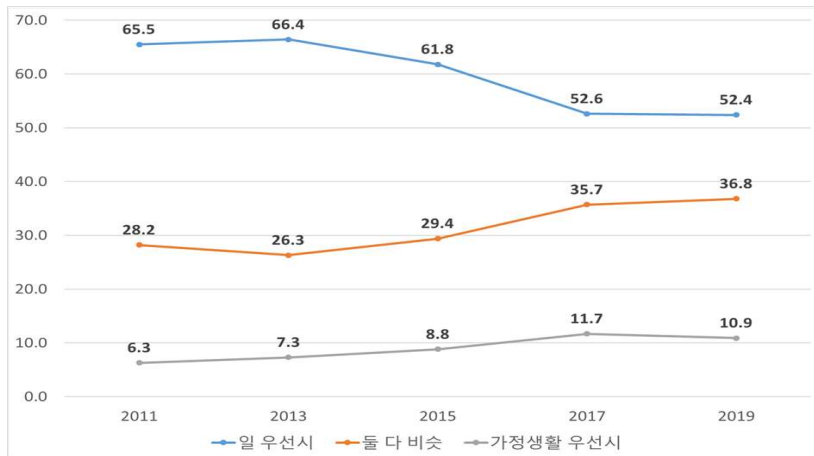
승하고 있어, 가치관 변화와 문화개선이 정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48] 일과 가정 우선도(%)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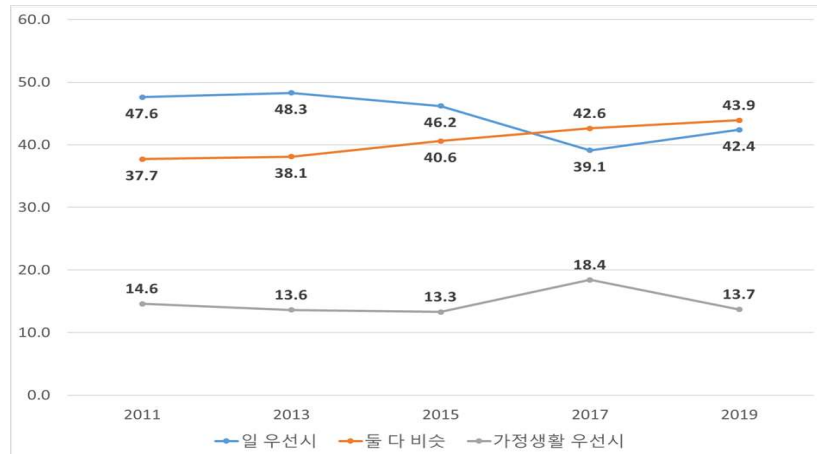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49] 일과 가정 우선도(%)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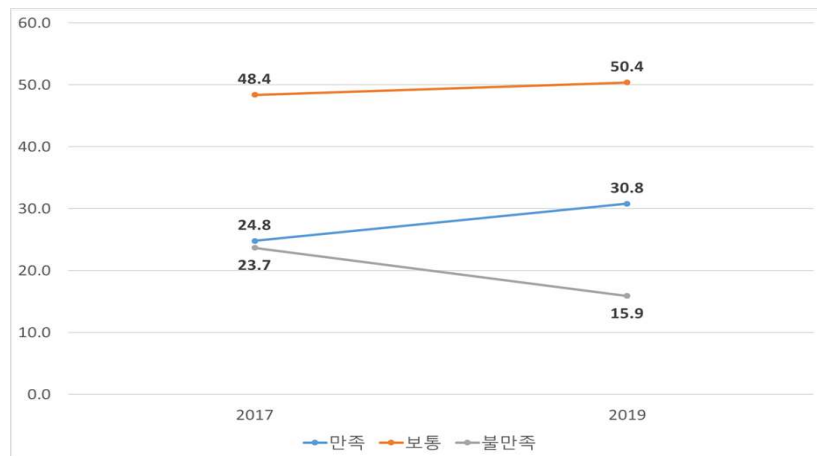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50] 일과 가정 우선도(%) - 여성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51] 일·가정양립문화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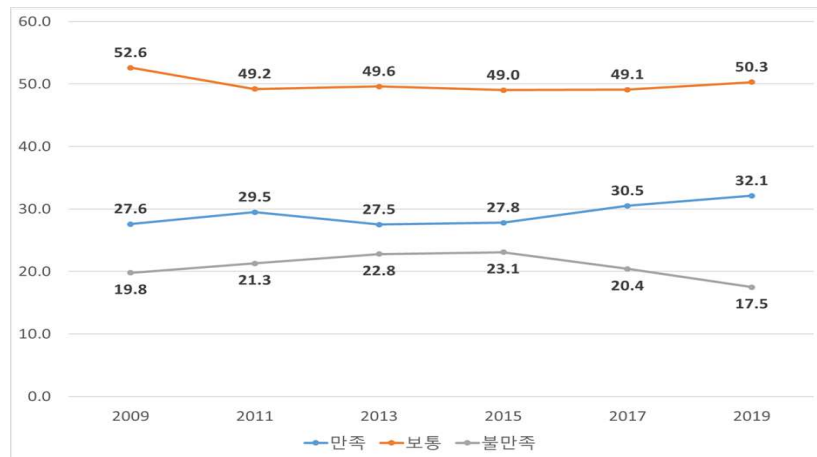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서울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만족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불만족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전반적으로 지난 5년 간 서울시민들의 노동인식이 개선되

는 것이 확인됨. 다만,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느끼는 경향은 하락하고 있고,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 하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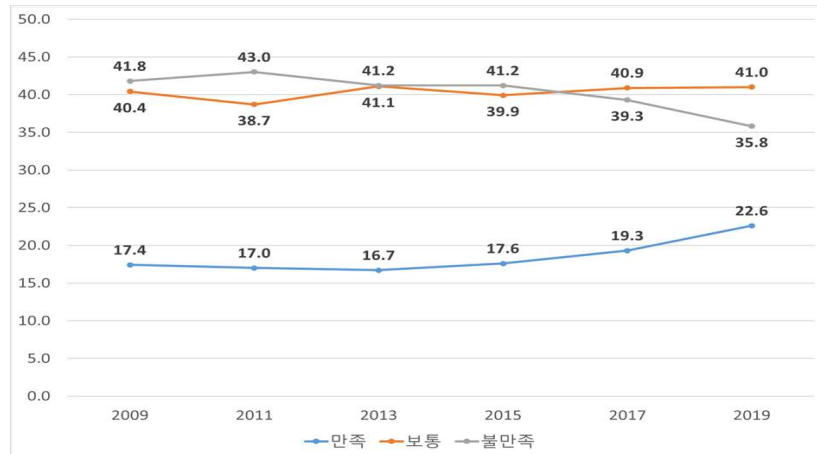
- (전반적인 근무만족도) 전반적으로 근무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이 2009~2015년 사이엔 27%를 전후로 횡보하다가, 2015년 이후 만족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2019년 32.1%로 상승함. 반면, 불만족 하는 비중은 2015년 23.1%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9년 17.5%까지 하락함
- (임금만족도) 만족하는 비중이 2015년 17.6%에서 22.6%로 상승하였고, 불만족하는 비중은 41.2%에서 35.8%로 하락함
-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을 느끼는 비중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65.3%에서 63.3%로 하락함. 느끼지 못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4.7%에서 36.7%로 상승함

[그림-52] 전반적인 근무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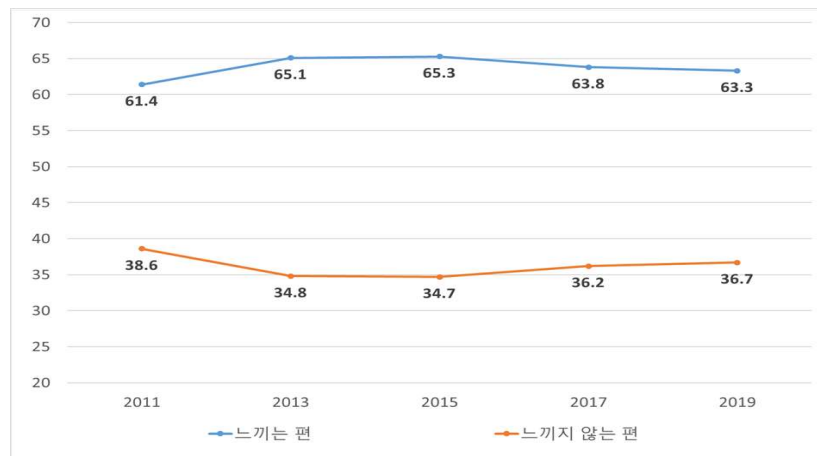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53] 임금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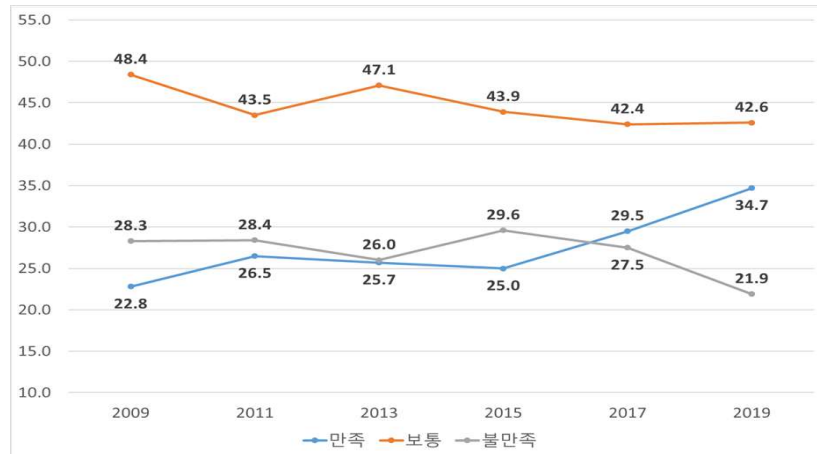
[그림-54] 고용안정성(%)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근무시간 만족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눈에 띄게 만족한다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됨. 2015년 25% 수준에서 2019년 최근 34.7%로 상승함. 불만족 비중을 2017년부터 역전한 현상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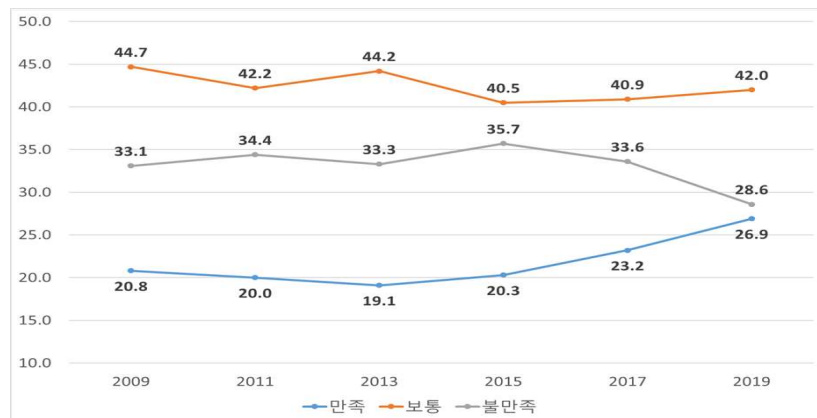
[그림-55]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복리후생 만족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도 2015년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만족하는 비중이 20.3%에서 26.9%로 나타났고, 불만족 비중은 35.7%에서 28.6%까지 하락함. 그러나 여전히 불만족 비중이 높으나, 향후 지속적인 개선으로 역전될 개연성이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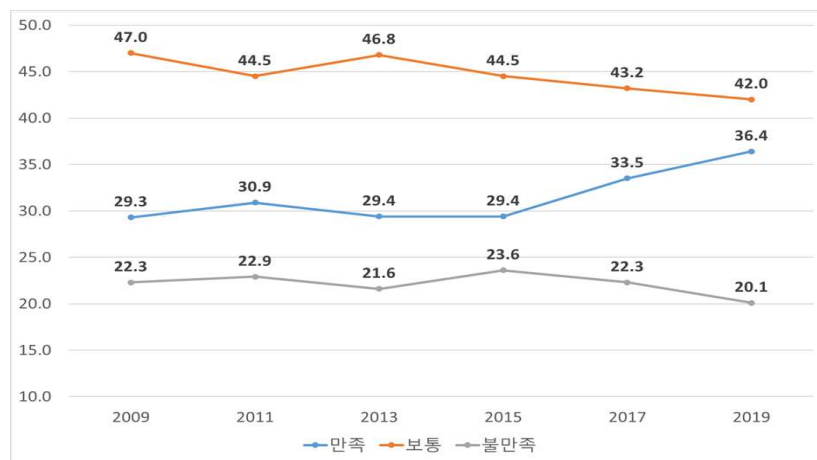
[그림-56]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근무환경 만족도) 근무환경에 관한 영역도 2015년 이후 만족 비중이 빠르게 상승함. 29.4%에서 36.4%로 상승하였고, 불만족 비중은 23.6%에서 20.1%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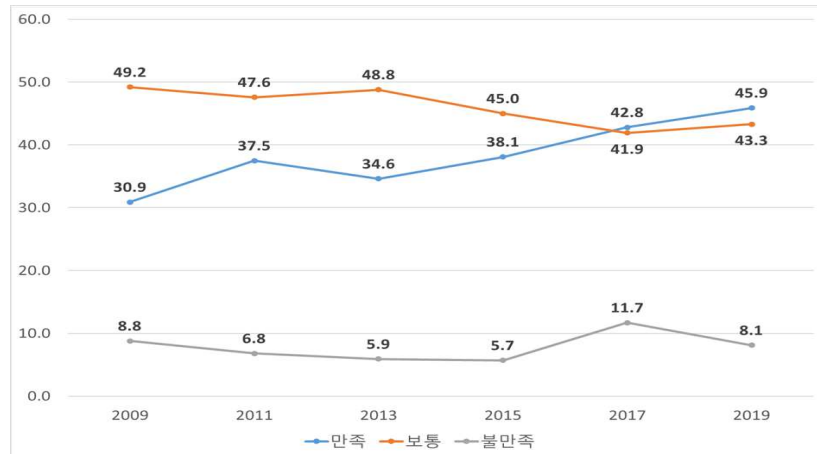
[그림-57] 근무환경 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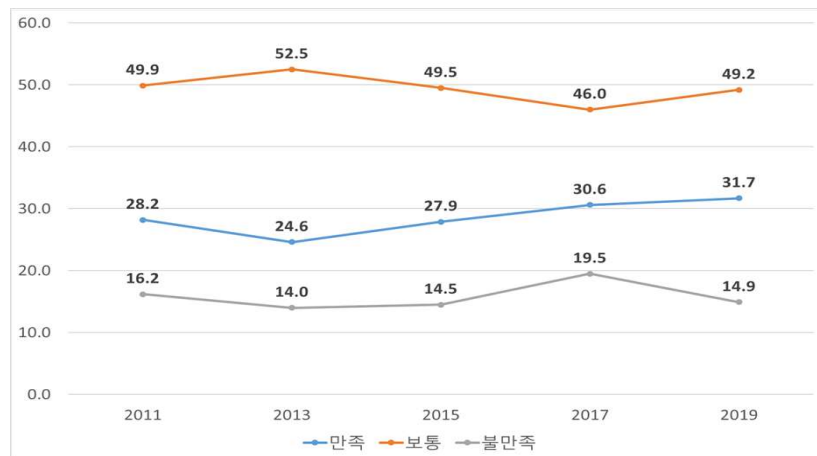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노력 만족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34.6%에서 45.9%로 '보통'보다 '만족' 비율이 높아짐
- (직장 내 교육훈련 기회 만족도) 직장 내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만족도도 2013년 이후부터 개선되는 현상이 보임. 만족의 비중이 24.6%에서 31.7%로 상승함
- (인사관리 만족도)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도 2013~2015년 이후부터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남. 만족 비중이 19.4%에서 23.5%로 상승하여, 불만족 비중을 2019년엔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음

[그림-58]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노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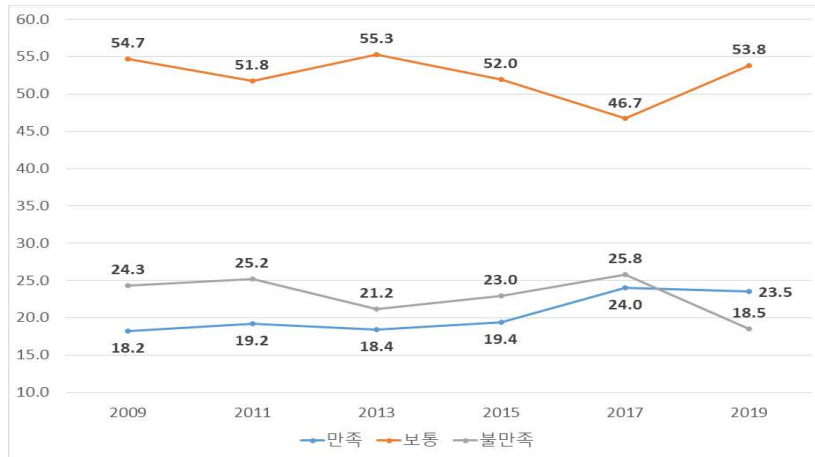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59] 직장 내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60]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